손.발.어깨.무릎.목.허리
MS재건병원
동인네거리 053.653.0119 지하철1호선 칠성시장역

每日新聞

※ 수술 후 발병률, AS여부등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노안백내장수술도!
이노안과의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제2018016호-중-02405호
상인롯데백화점 뒷편 상인프라자 5층 T.632-6800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음력 7月 1日 癸未) 대표전화 053)255-5001 imaeil.com 대구 24~34℃ 구미 24~34℃ 안동 23~34℃ 포항 25~30℃ 제23986호

TK 통합신공항, 인천 맞먹는 중추공항으로 飛上

대구시, 신공항 특별법 설명회

활주로 3.8㎞…군용기 포함 모든 항공기 이·착륙 가능하게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유사시 인천공항 역할·기능 대체

내달 초 발의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을 넘어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중추공항'으로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3면

물류·여객이 인천공항에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통합신공항을 더한 '양극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항기본계획상에는 중추공항 1곳, 거점공항 6곳, 일반공항 10곳으로 분류돼 있다.

대구시는 28일 동인동 청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통합신공항의 위상을 격상하고 기능과 성격을 재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신공항을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해 한반도에 유사 상황 발생 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에 건설을 추진 중인 활주로도 미국 전시 증원(RSOI) 물자 수송이 가능한 3.8㎞로 규정했다.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공항을 건설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우선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의 25%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활주로와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별법에는 신공항과 연계한 에어시티와 공항산업단지, 접근 교통망 등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인·허가 의제 처리와 특례 등을 통해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분야는 현재 국방부 및 주한미군과 함께 K-2 내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내달 중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달 말쯤에는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 공항 분야는 민항 시설의 기능과 규모 등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군 시설과 민항 시설의 배치 방안과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 추세에 맞는 수요 재검증, 활주로 길이 조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특별법은 다음 달 초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주 의원 측과 대구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대구경북 의원들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주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공동 발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다.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발의 후에는 여당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여야 설득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올 연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부 대 양여 심의와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애초 완공 목표였던 2028년보다는 2년 정도 늦어진 2030년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해군, 해상서 北 탄도미사일 요격한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1번
8200t급 '정조대왕함' 진수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이 28일 진수됐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8천200t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4면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일컫는 '광개토-Ⅲ 배치-Ⅱ' 1번함이자,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함이다.

이 함정은 기존 세종대왕급(7천600t급)과 비교해 전투 능력이 월등히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스텔스 기능·무장력이 진일보했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수식 축사에서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금도끼로 진수선을 잘랐다. 김 여사는 이달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이 주관해온 해군의 오랜 전통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한미 기준금리 2년반 만에 역전

美 0.75%P 인상 '자이언트 스텝'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커
국내 증시·물가 큰 영향 미칠 듯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p〉 인상)을 밟았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28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국내 증시와 물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린 2.25~2.50%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다. 2020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역전이다.

미국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린 데 이어 5월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 지난달에는 1994년 이래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가파른 금리 인상 단행 배경에는 미국의 심각한 물가 상승세가 있다. 최근 발표된 6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9.1% 상승, 1980년 11월 이후 42년 만에 최고 수준 인플레율을 기록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준이 물가 급등세를 억제코자 이달 금리를 1%p 올리는 '울트라 스텝'이란 초강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지만 연준은 물가 잡기에 우선 초점을 둔 강경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라 국내 경제계도 긴장하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돈을 굴리는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금리가 더 낮은 한국이 더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된다. 결국,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져 '등 터진 새우'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출 기업 중심으로 국내 기업 대출 금리 상승,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 거래 비용 증가, 국외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이 빅 스텝에 나섰을 때 이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예견하면서 틈을 좁혔던 터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심각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추가 빅 스텝을 택하기보다는 연말 2% 후반에서 3%까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심의필 190508-중-93654호
오래된 척추·관절 통증
완쾌신경과의원 t.642-2123
(상인동 홈플러스 옆 우리은행 3층, 7층)

자금 이탈 막고 환율 방어…한은 빅스텝 빨라질 듯

한미 기준금리 역전 파장

기대 인플레이션 사상 최고 高물가 굳으면 인상 불가피

현재와 긴축 비슷한 2018년 채권시장 25조가량 순유입 "투자 당장 악영향은 없을 것"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하방 압력이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기준금리 역전까지 맞닥뜨린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는다.

◆"물가 관리가 국내 금리 인상 변수"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달 또 한 번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에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물가 관리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기준금리를 계속 큰 폭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물가다. 한국은행이 취약차주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을 알면서도 이달 첫 빅 스텝을 단행한 건 '고(高)물가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6월(3.9%)보다 0.8%p 오른 4.7%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상승 폭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와 최대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내달 초 나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의 지표가 잡히지 않을 경우 미국이 금리 인상 폭을 넓힐 수밖에 없어 한국은행도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유정 DGB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지만, 미국의 금리 경로가 가파를수록 우리 속도가 빨라진다"면서 "현재는 금리 외에 물가 등 복합적 어려움이 있다. 금리가 역전되면서 외환이 빠지는걸 막아야 하고, 환율도 관리해야 해 원래 한국은행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가계에 미칠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시, 금리 인상 이어지면 위기"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세 차례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이 진행되는 지금과 상황이 가장 비슷한 2018년을 예로 들며 투자 측면에서는 당장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국내 유가 증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 약 7조원이 빠졌지만, 오히려 채권시장으로 25조원가량이 들어왔다.

이때처럼 국내 시장금리가 여전히 미국보다 높고, 기준금리 역전 폭도 크지 않은 만큼 강달러 현상이 일정 수준에서 진정된다면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국내 대표주 중심으로 진정 흐름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 금리 인상 흐름이 커지는 경우다.

도유정 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연내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금리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 가계 이자 비용이 급증해 이를 메워줄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타격도 불가피하다. 결국 가계도 시장도 증시에 투자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 기업도, 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져 금리 인상기가 채권 투자에 적기라고 한다. 다만 경기 침체가 굳어질 우려가 걷히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한발 빠른 뉴스"
안드로이드용 매일신문 앱 아이폰용



박정희 대통령 특별기획전 28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개막한 '박정희 대통령 특별기획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마련한 이번 전시는 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근대화 업적을 조명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이케아 안심뉴타운 온다…2025년 오픈

1800억 투입 국내 5호 매장 건립 직·간접 고용 1400명 창출 기대 연간 220만명 방문객 유입 효과

대구에도 이케아 매장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 방문객 유입 등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28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이케아코리아(유)(대표 프레드릭 요한손)와 '이케아 대구점'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 요한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케아는 동구 안심뉴타운 내 4만1천134㎡ 부지에 모두 1천800억원을 투자해 새 매장을 건립한다.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300여 명은 대구에서 채용할 방침이다. 10월까지 부지 계약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 2025년 상반기 개점할 예정이다.

이케아는 1943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세계적 가구 및 홈퍼니싱 유통기업. 전 세계 64개국에서 47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케아코리아는 2014년 12월 국내에 공식 진출했다. 현재 국내에선 수도권 3곳(광명점, 고양점, 기흥점)과 동부산점 등 4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대구점은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들어서는 이케아 매장이 되는 셈이다.



대구시가 28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이케아코리아와 '이케아 대구점'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 대구시 제공

시는 이케아를 유치하기 위해 물밑에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직·간접적으로 1천400여 명의 고용 창출, 연간 220만 명 이상 방문객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홈퍼니싱(가구와 더불어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 집을 편리하고 개성 있게 꾸미는 일) 분야에도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케아는 지역에서 직원 300여 명을 채용하는 것 외에도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비치고 있다.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제품이나 외부 용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이케아 측의 계획이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도 이케아가 대구에 안착,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유) 대표는 "이케아의 비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처럼 대구 소비자들이 더 좋은 생활을 누리는 데 이케아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신규 매장에 대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투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계적 가구 기업인 이케아의 대구 진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시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한 대구 만들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케아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대구시민의 큰 사랑을 받는 대표기업이 돼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소설가 이인화 임명

실명 유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문성 보유 역량 고루 갖춘 혁신 인재 평가



소설가 이인화로 알려진 유철균(사진) 전 교수가 제12대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경북도는 유 전 교수를 8월 1일 자로 신임 원장 직에 임명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유 신임 원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2세에 필명 '이인화'로 조선시대 정조 독살설 모티브의 소설 '영원한 제국'을 써 100만여 권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다.

2003년엔 "문학의 미래는 게임에 있다"며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회를 창립하고, 2005년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구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학과장을 지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모바일 게임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스토리 자동생성 프로그램 등을 연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원장 추천과정에는 인문학 기반의 원장을 선임해 지역의 싱크탱크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융합적 연구와 파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과 인문학적 역량을 고루 갖춘 혁신형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역사와 문학에 대한 식견은 물론,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에도 역량을 겸비한 디지털 인문·사회학자인 유 전 교수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유 신임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는, 통합·연결의 시대"라며 "대구경북연구원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융합시대를 앞서가고 지방시대에 걸맞은 대안 제시로 대구경북의 위상을 되찾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연구원도 대한민국을 바꿀 파괴적인 정책 대안들로 지방 성공시대를 열어 달라"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每日新聞

경북대학교병원 모발이식센터 임상교수 역임
모발이식
닥터헤어Lee 의원
원장 이정호 2·28기념중앙공원 옆 053-422-5824

공항 건설·종전부지 개발에 국비 지원 '명문화'

기부대양여+정부 재정 사업
K-2 후적지 특별 구역 지정

필요한 경우 예타 조사 면제
지역 기업·주민들 고용 우대
조세·부담금 감면 조항 담겨

국회 발의 초읽기에 들어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골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K-2 후적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과 인접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건설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중추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구경북 주요 도시와 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이 명시됐다.

결국 특별법의 핵심은 ▷민간공항 ▷군공항 ▷접근교통망 ▷공항도시 ▷공항산단 등 5가지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특별법상 민간공항은 현재 민항부지 매각 대금을 포함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 군 공항의 경우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시행하되, 종전 부지 재산 가액을 넘어서는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부지는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했다.

공항산단 조성을 위해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최대 2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조항도 담았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내달 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필요한 경우 각종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개발사업에 따라오는 각종 부담금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건설 과정에서 공사나 물품, 용역 등 지역 기업의 참여를 우대하고,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을 우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는 50년 범위 내에서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관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전체를 총괄하지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시에 위임할 수 있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 역시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하는 대구시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 일정도 조정해 같은 시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이재명發 특별법 TK 정치권 "환영"

주호영 "더 큰 지원 담겼으면"
"구체적 실체 없어"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대세론을 형성 중인 이재명 의원이 최근 '대구경북(TK)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자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특별법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기대를 하거나 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재명발 TK 신공항 특별법 별도 발의 움직임과 관련 '나쁠 건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존에 준비 중인 TK 신공항 특별법 대표발의를 앞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특별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우리 특별법보다 더 큰 지원안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발 TK 신공항 특별법이 좋다면 나 역시 그 법안에 찬성 서명을 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에서 TK 신공항 건설 지원 여·야·정 협의체 간사로 활동했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의원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달 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겸 TK 신공항 추진 상황 검토를 위해 지역 의원들과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대구를 찾으면 특별법 협조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협조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당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별도의 TK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된 만큼, 지역 의원 사이에서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 움직임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통합신공항 현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법안의 구체적인 실체도 드러나지 않았다. 진정성 없이 TK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입장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이철우 "제정 힘 실어 달라"…임이자 "적극 검토"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 확대
이주자 생계·정착지원 등 포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 정치권에 "국비 추가 투자를 통해 주민 이주를 돕고 공항경제권도 성공리에 조성하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은 지역 신성장 동력이자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가의 핵심사업이 돼야 한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앞선 초안의 '군 공항 전액 국비 건설'이나 '종전부지 무상 양여' 등 무리한 조항을 제외하고서, 정부가 당초 초점 맞췄던 종전부지(대구공항) 개발 외에도 신공항 조성 주변 지역 개발과 이주민 지원책까지 국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 힘써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법 수정안에는 ▷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 확대(반경 10㎞→20㎞)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비용분담에 관한 특례 ▷군위·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이주자 이주·생계·정착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개발 예정지를 반경 20㎞로 확대하면 구미 산동읍·해평면 등도 포함돼 구미 국가산단을 신공항 배후산업단지로 하는 통합 항공클러스터를 개발할 수 있다. 대구경북선 광역철도는 건설비 30%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특례를 적용하면 지역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주민 지원 조항은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생계유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근거가 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김용판 "경북의원들 동참 확신"

"법안 통과되면 시너지 효과"

국민의힘 김용판 신임 대구시당위원장(달서구병)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대해 "경북의원들도 동참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북의원들이 100% 동참한다는 말을 전달받지는 않았으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동참하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많다. 그런데 어떻게 경북 의원들이 다르게 볼 수 있겠나. 당연히 경북의원들도 동참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 같은 발언은 법안 통과 전망을 높이는 한편 굳건한 당내 결속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 출신인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모든 제도엔 장단점 있다. 결국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통과했기에,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每日新聞

심의필 제190813-중-97996호
대구연세안과
레이저백내장 노안수술 · 라식
수성보건소 맞은편 T_053.626.8881

여야 '류삼영 총경 출석' 신경전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난항

'행안부 경찰국 신설' 갈등 계속

與 "정쟁화 무대 만들수 없어" 野 "떳떳하다면 반대 말아야" 이견 못 좁혀 일정 합의 불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사이 대결기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내달 4일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선정 문제를 놓고 격렬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27분만 정회를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선동을 통한 정쟁화의 무대가 되게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경찰국 신설 논란의) 핵심에 (있는)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꼭 (채택)했으면 하는데 여당은 합당한 사유와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굉장히 반대한다.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우리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증인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8월 8일 이후 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경북 영천시청도군)는 "경찰국이란 이슈를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엄연히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리다.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류 총경이)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야당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정인의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으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자정쯤 자동으로 산회 됐다.

이 간사는 "그동안 수 차례 만나 조율을 시도했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기 힘들었다. 생각보다 오래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류 총경의 증인 채택 관련 여야 간 줄다리기가 29일을 넘겨 길어질 경우, 내달 4일로 잠정 합의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尹-조코위 대통령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배터리 첨단산업 전략적 연대 구축"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 '인니 수도 이전' MOU 체결 친환경 산업 투자촉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북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 일본에 이어 27일 방한, 1박 2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6년 5월 및 2018년 9월 국빈방한,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5번째로, 3년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국가원수로서는 두 번째 공식 방한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정상과의 첫 공식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발표에서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먼저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가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작년 우리나라의 요소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적극 협력해줘서 감사하다. 양국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공급망 안정화 같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과 관련,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이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국방·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두 정상은 양국이 함께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첫 시험비행 성공을 축하하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제적 현안 관련 공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이라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분야의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권성동 "이재명,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

야당 유력 당권 주자 향해 맹공 尹과 공식석상에 나란히 참석 '문자유출 논란' 정면돌파 나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 유출 사태' 이틀 만인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세게 비판하는 등 '정면돌파'에 나섰다.

권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해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윤 대통령 내외가 행사장 앞줄 가운데 앉았고 권 대행은 앞줄 왼쪽에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나란히 앉았다.

이날 진수식에서 권 대행과 윤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권 대행이 문자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권 대행이 현 직무대행 체제를 안정적으로 마치고 내년에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권 대행이 이날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문자 유출 사태에 대한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동시에 차기 여권 당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40대 참고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김진표 "군 공항 이전 尹·지자체장 의지 중요"

"대통령과 회동서 개헌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달 대통령·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등 대도시 지역 군 공항 이전을 두고는 대통령과 관할 자치단체장 의지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의장단과의 회동을 제안, 일정을 협의 중이다. 개헌을 포함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대도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군 공항 이전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관할 지자체,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의장으로서 진두지휘할 수 있지 않지만 여야 간 잘 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마포점:02)706-0303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031)593-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창원점(창원역 앞):055)273-8242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솔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상담 전화 1588-8499 / 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 538-9388

■ 동인네거리 문의전화 (053)425-4440
■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입구 문의전화 (053)426-1511
■ 남일동 아카데미극장 옆 문의전화 (053)425-7575
■ 포항 육거리 시민회관 앞 문의전화 (054)244-5110
■ 안동 구)농고 사거리 문의전화 (054)859-2248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대회에서 컷오프에 통과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이재명·강훈식 당대표 후보, 장경태·박찬대 최고위원 후보, 우상호 비대위원장, 도종환 중앙당 선관위원장, 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다. 연합뉴스

당 대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3파전

민주당 전대 예비경선 결과
박·강 통과 후 단일화 띄우기
최고위원 8명도 컷오프 통과
친명계·비명계 각 4명씩 생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강훈식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8명의 당 대표 후보 중 이들 3명이 본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예비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다시 모아서 유능한 대안정당을 만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컷오프 통과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 속 나머지 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당 대표 예비경선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소속 재선의 박용진·강훈식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두 사람은 컷오프를 통과하자마자 단일화 이슈를 띄웠다. 박 의원은 "강훈식 의원과 커다란 스크럼을 짜겠다"고 했고 강 의원은 "박 의원과 통화해보고 논의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두 사람 간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17명의 후보 중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의원(기호 순) 등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본선에선 이들 중 5명이 최종 선출된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4명씩 살아남았다. 친명계는 장경태·박찬대·서영교·정청래 의원, 비명계는 고영인·고민정·송갑석·윤영찬 의원이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됐으며,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투표 100%로 진행됐다. 다만, 민주당은 통과 후보들의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당권 도전에 나선 5선 설훈 의원과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김민석 의원, 97그룹의 재선 강병원·박주민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민주 차기 시도당 위원장
대구 4명·경북 3명 출마
市, 강민구·권택흥·김성태·김용락
道, 장세호·유성찬·임미애 출사표



강민구 권택흥 김성태 김용락 장세호 유성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 차기 시도당 위원장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모집이 마무리됐다.

대구시당 위원장에는 4명이 출마 선언을 했다. 강민구 대구 수성구갑 지역위원장과 권택흥 달서구갑 지역위원장, 김성태 달서구을 지역위원장, 김용락 수성구을 지역위원장 등이다.

강민구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대구지방경찰청과 수성경찰서 앞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 내비치는 피켓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을 지낸 권택흥 위원장은 지역 내 대표적 노동계 인사다. 그는 "지역의 도약을 위해 중앙에 종속되기보다는 대구 민주당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끌겠다"면서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를 함께 드러냈다.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위원장은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기초·광역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대구시당의 행정 관리와 당원 간의 불화를 봉합하겠다"며 민생경제 연구소(가칭), 소통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공략으로 내걸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을 지낸 김용락 위원장은 "1만 명인 당원을 2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당원 배가운동'과 미래 인재 육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북도당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공모 결과, 기호 1번 장세호 현 경북도당위원장, 2번 유성찬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3번에는 임미애 전 경북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역 도당위원장인 장세호 후보는 "당원배가, 3만 권리당원 꼭 만들고 평당원이 중심되는 도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면서 "지원당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늘리고 지역 현안 발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유성찬 후보는 "경북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정당문화, 당원 중심의 도당 구축을 위해 정당개혁에 앞장 서겠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등 조직을 활성화해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경북도의원으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임미애 후보는 "중대선거구제 혹은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국민 정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민주적 정치 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지방·치아 인체 폐기물 재활용 허용
대구 첨복단지 관련 실증사업 탄력
정부 '경제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자율주행로봇 도로 운행도 추진

정부가 인체 폐지방에 대한 재활용을 허용하면서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 중인 관련 개발 실증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해 배달로봇과 드론이 산업 현장에 널리 쓰일 수 있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폐지방, 폐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해 본인의 치아를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인체 유래 콜라겐은 지방 흡입 시술로 발생한 인체 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다.

현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 창상피복재, 바이오잉크 등 개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인체유래 의약·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해 의료기술 발전과 신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완제품 소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비용 저감 효과를 갖게 된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청와대 개방 78일 만에 140만명 방문"
김승수 의원 문화재청 자료 공개
경복궁 연간 관광객 수보다 많아



지난 5월 10일 개방된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이 1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청와대 관람 인원' 자료에 따르면, 5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78일 간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이 139만6천8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람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인 경복궁의 지난해 연간 관람객 108만여 명보다 32만명 정도 많고, 세계유산인 창덕궁의 지난해 연간 관람객 64만여 명보다는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5월에는 한 명도 없었으나, 6월 1천787명, 7월 3천26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와대 관람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지난달 22일부터 5일 간 청와대 관람객 1천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1%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해 서촌 및 북촌한옥마을 등을 연계해 전통문화 관광벨트화를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외국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일상 회복에 감염병 기승 '불안한 여름'

지난해보다 신고 건수 크게 늘어

로타·노로바이러스 작년 2배

급성 호흡기 감염 입원 폭증

식중독 환자도 가파른 증가

국내 코로나19가 여름철 재유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 회복으로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여름철 감염병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표본감시 감염병 신고 현황'(올해 28주 누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는 지난해 대구에서 14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3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도 지난해 54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94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대구 북구의 한 물놀이장을 다녀간 이용자들 중 일부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감시 감염병=발생률이 높아 환자 발생의 전수 보고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4급 법정감염병이 해당한다.

설사 증상을 보이는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경우 지난해에는 모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각각 52건, 8건이 발생했다.

감기로 대표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도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호흡기 세포융합(RS)바이러스' 입원 환자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는 344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32건이던 '아데노바이러스'(HAdV) 입원 환자는 올해 47건, 3건이던 '파라인플루엔자'(HPIV) 환자는 올해 49건으로 늘었다.

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도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5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대구향교 충효교실 운영 28일 대구향교에서 열린 '2022년 여름방학 청소년 충효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선비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다. 대구향교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를 주제로 한 충효교실 프로그램을 내달 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인구 5,174만명…정부 수립후 72년 만에 첫 감소

고령층 871만명 1년 새 42만명↑

15~64세 생산연령인구 34만명↓

경북 군위 노령화지수 가장 높아

작년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노인 인구는 한 해 동안만 42만명이 급증, 871만명으로 불어났다.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11월 1일 기준·등록 센서스 방식)는 5천173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0.2%) 감소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 성장률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하면서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3천694만4천명)가 34만4천명(-0.9%) 줄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7만7천명 감소했다.

0~14세 유소년 인구(608만7천명)도 1년 새 16만7천명(-2.7%)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870만7천명으로 1년 만에 41만9천명(5.1%) 증가했다. 이로써 총인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3.3%에서 지난해 16.8%로 5년 만에 3.5%포인트 상승했다.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다.

노인 부양에 따르는 부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는 지역 소멸과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작년 대비 0.1% 늘면서 4개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반면 중부권·호남권·영남권 등 나머지 권역은 전부 인구가 감소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880.1)으로, 경기 화성시(51.2)의 17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죽곡정수장 저류조 사고 원인 '시안화수소'가 아닌 '황화수소'

현장 포집 기체서 1천ppm 검출

숨진 인부 혈액에서도 동일 성분

중대재해법 위반 적용 여부 관심

지난 20일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다 숨진 60대 인부는 시안화수소가 아닌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구시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포집한 기체에서 황화수소 1천ppm 이상이 검출됐고, 사망한 인부의 혈액에서도 동일 성분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질식사 원인으로 추정된 시안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저류조로 내려가는 맨홀 입구에서 복합가스 측정기(멀티레이)를 이용해 시안화수소 47ppm(치사량 50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다른 측정기와 정밀기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안화수소는 검출되지 않고 황화수소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화수소는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가스로, 하수구 등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유기물 분해로 발생한다.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호흡이 마비되고 폐 조직이 손상된다. 사고 현장에서 검출된 1천ppm 수준에서는 몇 분만 노출되더라도 사망에 이른다.

황화수소는 질식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가스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질식사망자 166명 가운데 28.9%(48명)가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안전수칙을 의무화했다. 밀폐공간으로 들어가기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수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소방 당국은 구조 당시 인부를 비롯해 사상자 3명 모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도 작업 전 유해가스를 측정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 범위가 관심사다. 죽곡정수사업소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이고, 사업소는 대구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책임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책임자가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대구 아동급식카드 새 운영사 '신한카드'

가맹점 확보·단말기 문제 해결

취약계층 아동의 끼니를 챙기는 대구 아동급식카드 새 운영사로 신한카드가 선정됐다.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전면 개선을 앞두고 마땅한 운영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매일신문 6월 21일 보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신한카드사를 대구시 아동급식카드 운영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새 운영사 찾기에 나선 대구시는 기존 아동급식카드 운영을 맡아왔던 대구은행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신한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그간 아동급식카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맹점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급식카드가 신용카드사와 연계되면 가맹점 확보는 훨씬 수월해진다. 신용카드사가 이미 확보한 다수의 가맹점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급식카드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배주현 기자

모 집

부동산직원

부동산 직원 모집
기본급 + α 지하철역 인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가족같은 분위기
황부장 010-6525-2420

모 집 기 타

월 500만보장 사원모집 계약대행 업무
남·여 0명 보너스 별도/중구 봉산동
차량소지자 한하여 010-7409-7995
애플토지개발㈜

배 달 직

직업 배달원오토바이소유자새벽2시~6시30분자유(1시간50분소요)
월50만 남칠곡지국 010-3810-7005

배달원모집 신천동, 대현2동, 신암동, 칠성동 일대 010-3046-3113

배달원 북구 산격1·3·4동 일대 남여노소 가능
오토바이소유자必 010-4628-1134

성당지국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일대
배달가능 010-3819-0808

배달원 황금동,두산동,지산동일대 주택상가주부환영 경험자우대 황금두산,지산지국762-4769

배달원 급구
경산시 압량읍 010-2517-1109

배달원 모집 남대구·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급구 대신동일대 남녀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종로지국 257-2902

배달원급구
율하, 신기, 안심 963-7355

배달원급구 파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유자 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 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 달성논공·옥포읍 면소재지,남여노소 정년,퇴직자,
오토바이소유자 우대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일대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두류3지국 010-3071-3529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업계최고대우
중범어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 원 시지, 노변동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대명4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지자可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 일대 배달원 모집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신문배달 고산 1,2,3동 시지 지역 남녀노소 최고
대우 794-0228·010-7929-8533

배달원 동구 방촌동 남여노소가능,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010-5584-8331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 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 오토바이소유자 및 송현1·2동거주자 환영 송현1
동지국 625-6315·010-2809-0030

배달원모집 봉덕/이천동 오토바이소유자 특대우 남부지국 471-9478

배달원모집 오토바이 소유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



음치교정·노래개인지도 전문
노래개인지도의 신神! - 작사작곡가 권혁식
이선희, 박진석, 백다원, 남진, 양지은, 문희옥 걸스데이가 그의 작품을 불렀다.
권혁식 작곡실 (대구) 010-3829-5995

매일안내 광고문의 080-711-2001 053 251-1234 每日新聞社

포항시 공고 제2022-1756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A1,2,3,6구역 일원) 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포 항 시 장

1. **분묘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일원 (총515필지)
   ※ 10번 필지조서 참조
2. **개장사유**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3. **개장후 안치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764-100 포항공원묘원 납골당 (재)포항공원묘원 (☎ 054-262-5453)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2. 06. 20. ~ 2022. 09. 19.)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포항시청 민자사업추진단 (☎ 054-270-8112~8115)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에 신고
9. **기 타** : 위 번지 내 포함된 분별이 어려워 확인하지 못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필지조서

곡강리 (총412필지)	1-1	2	3	3-1	3-2	3-3	3-4	3-5	4	4-1
	5	55-1	55-3	55-4	55-5	57-1	58-1	58-2	59	60
	61	62	68	76	77	78	79	80	81-1	81-2
	81-3	81-4	82	83	84	84-2	85	86	87	88
	89	90	91	92	92-1	93	94	95	95-1	96-1
	96-2	97	97-1	98-1	99-1	100-1	100-2	101	102	103-1
	103-2	104	105	106-1	106-2	107	109	110	111	112-1
	112-2	112-3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1
	122-1	122-2	122-3	122-4	122-5	123	124-1	125-1	126-1	126-3
	126-4	126-5	127	128-1	128-2	129-1	129-2	129-5	129-6	130-1
	130-3	130-4	130-5	131-1	131-2	131-3	131-4	132-1	132-3	132-4
	133	133-1	133-2	133-3	134-1	135	136	138-1	138-2	138-3
	138-4	138-5	139-1	139-2	139-3	139-5	139-6	139-7	139-8	139-10
	139-11	139-12	139-13	139-14	139-1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8-1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7-1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0-1	171
	171-1	171-2	172	173-1	174	174-1	175	176	176-1	177
	177-1	178	178-1	179	179-1	180	180-1	181-1	182	182-1
	183-1	184	184-1	185-1	185-2	185-3	186	187	188	189
	190	191	191-1	192	193	193-1	194	195	196	196-1
	197	198	198-1	198-2	199-1	199-2	199-3	200-1	200-2	200-3
	200-4	200-5	201	201-1	201-2	201-3	202	202-1	202-2	203
	204	205	206	207	207-1	208	208-1	209	209-1	210
	210-1	211	211-1	211-2	212	213	213-1	214	214-1	215
	216	216-1	217	217-1	218	218-1	218-2	219	219-1	220
	221	222	223	223-1	225	226	227	227-1	227-3	228
	229	230	231	232	233	234-5	234-10	235	235-2	241-2
	242-1	244	245	246	247	248	249	250-1	250-2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59-1	259-2
	260	260-2	260-3	261	261-2	262-3	262-5	262-11	263	263-1
	263-2	264	265	266	266-2	266-3	267-1	291-2	291-6	291-8
	291-9	292	293	294	295	295-1	296-1	296-2	296-3	296-5
	297	298-1	299-1	301-4	719-1	719-3	720-3	775-7	777-3	779-2
	779-10	779-11	779-12	779-16	779-17	779-18	779-19	779-26	779-27	782-6
	782-13	783	784	785	786	787	788	790	791	792
	792-1	793	793-1	794-1	795	796-1	796-2	797-6	797-7	798
	800-4	800-5	800-6	804-4	805-3	806-4	866-1	1587-4	1588	1589
	1590-23	1590-24	1590-25	1592-7	1592-8	1592-20	1592-29	1594-5	1594-6	1595
	1606-1	1609	산1-3	산1-4	산1-5	산2	산2-1	산3-1	산3-2	산4
	산5	산5-1	산5-2	산6	산7	산8	산9	산166	산167	산168
	산3	산3-3								

용한리 (총103필지)	772	773	774	775	776	777	778-1	779	780	781
	782	783	784	785-1	785-2	786-1	786-2	787	788	789
	790-1	790-2	793	794	795	796	797	797-1	798-1	798-2
	798-3	799	799-1	800	800-1	801	802	803-1	804	805-1
	805-2	805-3	805-4	806	806-1	807-1	808	809-3	809-5	809-6
	840	841	842	844	850-1	851-1	852	산76-7	산77-2	산77-3
	산77-4	산79-1	산80-10	산84	산84-1	산85-1	산85-6	산85-8	산85-10	산85-11
	산85-12	산85-13	산85-14	산85-15	산85-16	산85-17	산85-22	산85-23	산85-24	산85-25
	산85-26	산85-27	산85-28	산85-29	산85-36	산85-37	산85-38	산85-39	산85-43	산85-45
	산85-46	산85-47	산85-48	산85-51	산163	산163-1	산163-2	산163-8	산171	산172
	산187	산196	산196-1							

每日新聞 창간76주년을 축하합니다

기획 · 출판 · 인쇄 · 광고

매일 P&I

Maeil Publishing & Information

사보 · 정기간행물
관공서 및 기업체 사보, 제품·기업홍보물
소식지, 캘린더, 다이어리

사사 · 도서제작
관공서 및 기업체 사사
도서기획·출판·인쇄
보고서, 단행본

기획 · 제작
포스터, 패키지, POP, 기업광고, 전단광고
CI · BI · Naming

대량인쇄 · 특수인쇄
윤전 전단 인쇄, 명함, 스티커, 봉투, 쿠폰·상품권
초대장, 수첩, 노트, 양식지·영수증, 메뉴판
현수막·배너, 선거홍보물



매일P&I는
Maeil Publishing & Information
每日新聞 직영
인쇄·출판 회사입니다

매일P&I는 창의적인 디자인과
수준 높은 인쇄기술로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선명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매일P&I
Maeil Publishing & Information

| 본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8층 T. 053. 716. 1212~8 F. 053. 425. 1211
| 현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8길 50 T. 053. 521. 4006~7 F. 053. 521. 4010

1kg 17만원 참다랑어, 영덕에 수백마리 버려진다

배정된 어획량 꽉차 위판 불가

온난화 영향 대거 혼획돼도 팔지 못해 바닷가 모두 폐기

어민 "쿼터, 대형선망 편중 정부, 조업·위판 허용해야"

1kg에 17만원이나 하는 최고의 횟감 참다랑어 수백마리가 최근 영덕 바다에 매일 버려지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오후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해변에 참다랑어 수백마리가 해류에 밀려와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을 빚자 영덕군이 긴급히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수거 후 폐기 처분했다. 참다랑어 폐기는 8월과 9월 초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시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영덕군과 정치망 어민들에 따르면 현재 3~5kg짜리 참다랑어가 정치망 관리선 10여척 당 적게는 500마리 많게는 1천마리 정도가 혼획된 후 버려지고 있다. 현재 시세대로 계산하면 영덕에서만 최소 3억~4억원 정도다.

귀한 참다랑어가 정치망 어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버린 이유는 영덕군 정치망에 배정된 어획량이 다 차버려 27일부터 조업과 위판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가 영덕 강구 앞바다 정치망에 대거 혼획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3, 4년 사이로 기후 변화와 온난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어민들은 "팔지도 못하는 참다랑어 때문에 정치망 손상과 더불어 다른 어종의 어획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형선망에 편중된 쿼터 조정과 함께 혼획된 참다랑어의 '위판 허용'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국가별 어종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참다랑어 한국 쿼터는 870톤(t)이다. 하지만 이중 80% 이상이 서·남해를 무대로 조업하는 대형선망 어업에 배정되고, 경북도의 정치망에는 74.4t이 배정돼 있다.

영덕 강구지역 정치망 어민들은 지난 19일 경북도청 앞에서 시위를 통해 어민들의 사정을 호소한 데 이어 8월 중 대통령실 집회를 통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구수협 김성식 조합원은 "포획이 금지된 고래의 경우도 혼획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판이 가능하다. 멸종위기 종도 아닌 참다랑어도 정치망 혼획의 경우 위판을 허용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어종의 변화에 대응하는 어업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



28일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변에 죽은 참다랑어가 쌓여 주민이 치우고 있다. 이 참치는 정치망 어선이 잡았다가 연간 어획량 한도가 차서 버린 것이다. 참다랑어는 그물에 걸려 어선에 오르면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어 바다에 버려지면 부패한다. 연합뉴스

의성 12곳, 국가지질공원 후보에

경북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에 올랐다.

환경부는 의성지질공원(안계분지, 쌍호리 퇴적층, 해망산 거대건열구조, 석탑리 누룩바위, 치선리 베틀바위, 점곡퇴적층, 제오리 공룡발자국, 만천리 아기공룡발자국, 의성 구산동응회암,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빙계계곡, 금성산 등 12곳)을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로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후보지 선정 후 2년 내 지질공원 홈페이지 제작, 지질공원 해설·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센터 설치, 지질 탐방로 설치 등 21개 인증 필수 조건을 이행해야 최종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환경 보전은 물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울릉도·독도 등 13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은 한반도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중생대 경상분지의 발달 및 진화 양상을 담고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며 "인증조건을 모두 이행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국가지질공원=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대법 "협력업체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

근무 직원 11년 만에 최종 승소 사측 1만8천명 직접 고용 직면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직원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사 직원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이나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 등을 생산·운반·관리하는 일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은 포스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포스코는 앞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1만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금까지 정규직 수준에서 받지 못한 급여 소급분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승혁 기자 psh@imaeil.com

"사기 당했다" 허위 신고로 돈 요구한 일당 집유

사기당한 것처럼 속여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22)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진정서를 내고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뒤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실제로 지난해 2월 도박 사이트 등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는 사기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모두 51개 계좌에 대해 거짓으로 금융피해 구제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챙겨주겠다'고 속여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 국가문화재 '보물' 지정

경북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玉山書院 無邊樓)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28일 "지난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옥산서원의 중층 문루(門樓) '무변루'를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옥산서원은 경주 양동 마을에서 태어난 조선 중기 문신 회재 이언적(1491~1553)을 모시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무변루는 1572년 옥산서원이 창건될 때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변루는 주변 자연경관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규모는 정면 7칸에다 옆면 2칸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좌·우 측면에는 가적지붕(맞배지붕 측면에 덧붙여진 한쪽으로 경사진 지붕)을 설치했다.

건물의 아래층은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온돌방과 누마루(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로 구성돼 있다.

위층은 가운데에 대청마루가 있는데, 좌우에 온돌방을 둔 뒤 다시 좌우에 누마루를 구성하는 등 매우 독특한 평면을 이루고 있다.

또 지붕에 있는 숭정(崇禎·1637), 건륭(乾隆·1782), 도광(道光·1839) 등의 중국 연호가 기록된 명문기와는 수리 이력을 알려 주고 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무변루는 영의정 노수신(1515~1590)이 이름을 짓고, 석봉 한호(1543~1605)가 현판을 썼다.

무변루의 '무변'은 북송(北宋)의 유학자 주돈이의 '풍월무변'(風月無邊)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원 밖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그 경계를 없애는 곳'이라는 뜻이다.

문화재청은 "무변루는 1572년 처음 지어진 이후 조선시대 유교 문화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진홍 기자 pjhbsk@imaeil.com

연금복권 720 (제11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700만원x20년	4조	269117
2등	월 100만원x10년	각조	269117
3등	1,000,000	각조	69117
4등	100,000	각조	9117
5등	50,000	각조	117
6등	5,000	각조	17
7등	1,000	각조	7
보너스	월 100만원x10년	각조	349900

부동산

아파트

급매

대우트럼프월드 84㎡(34)
급매8억2천(24층), 전세4억7천/올확장, 시스템에어컨, 수성못 사이조망, 9월 입주미 751-2400·010-4040-9800
No. 가-16-4285 수성구 트럼프SK공인 강미숙

상가주택

임대 달서구 이곡동
534-3 지하264㎡(80), 2층231㎡(70), 4층198㎡(60), 5층주택165㎡(50)
E/V, 주차장有 010-9493-3925

상가

일반상가

포항 최요지 대형상가 전층 병원
입점 계약완료, 대942㎡ 면적3887㎡
지하1층~지상8층 월4700만出
매95억 수익률 0.6% 010-2340-0022
No. 27260-2021-00108 수성구 혜화부동산 채현수

통상가 교회, 회사 사옥 최적지 대198 건302
북구 연경동 매37억
주인직영 010-6727-3330

영대병원 부근 메디컬 빌딩 시행 최적지 면적200
매90억 010-7464-8984

5층 통상가 대로변 본동 요양병원, 교회, 사옥 등 주차 확실, E/V有
대1494 당2천만 010-5341-0049
No. 27170-2020-00017 서구 대진부동산 이승열

유흥주점 매매 수성구 두산동
룸12+6개 주차완비 약660㎡(200)
공동 영업할 분/ 중과 없음/ 권·시설 상담후 결정 010-3200-3069

임대·앞산호텔 옆
1층247㎡(75) 4층 231㎡(70)
대명동 · E/V有 · 가격절충
주인직접 010-3503-1565

달구벌대로네거리 코너점 달서구 멋진 6층빌딩 대667㎡ 건2532㎡
명도미 급매62억 010-3501-1477

보25억 월2억出 수익률 6%이상 최신 빌딩
※잔고증명, 제시요 010-3501-1477

◀카페 인수 하실 분▶
만촌동 대단지아파트 배후지역
보5천/월230, 권 협의, 월수익 보장
범어1부동산 27260-2020-00125 010-3510-9806

모텔

구미모텔 임대 보4억 월1500
방35(월세 절충불가) 현재 주인직영중 월매출5000만, 월수익1200~1500만 꼭 하실 분만 425-4504
No. 27110-2020-00045 중구 거기중개 강은경

모텔 임대 보증금 7억 월세 1800(부 별)
객실36 연매출 6000만원전후 달서구, 주차장 大
010-9300-3008
No. 가16-2661 수성구 영재공인 유영재

전원주택

성주 계곡좋고 물좋은 귀촌 텃밭 2009㎡ 황토집 99㎡(30)
태양광有 매6억3천/ 성주 산좋고 물 많은 힐링 텃밭 1404㎡ 생활컨테이너, 정자有 매4억4천 010-4513-3888
No. 27290-2019-00075 달서구 삼인부동산 김주호

대지/임야/공장

급매 물류단지! 구미IC 근접 15,870㎡(4,800)
당62만 010-8242-4406

서대구공단 대로접 나대지상태 명도미
대1521㎡ 급매69억 010-5399-4122

청도 화양읍 농막, 창고有 (과수원) 1769㎡(535) 몽땅1억4천 ②매전면 대740㎡(224) 4천만 ③매전면 산 30,000㎡(1만) 中 (2천)6611㎡ 건축가능 1억5천만 054) 371-4599
C.J. 부동산컨설팅

성서2차 공장급매 대500 층고 8m 호이스트 10t 3대
20m도로접 010-3502-7932
No. 27290-2019-00205 달서구 유성부동산 김기원

들안길 땅 1058㎡(320), 당2600만 대로코너 상업지역 926㎡(280) 당4300만 010-4545-6773
No. 가16-2661 수성구 영재공인중개사 유영재

공장·창고 매매 경부 영천 IC 5분
공장용지 6,046㎡ 공장건물 3,964㎡
매매가 24억 상담 010-3798-6777

자연녹지 현풍 구지 국가산단접 3868㎡ 당120만
010-8678-2269
No. 27290-2018-00072 달서구 이곡역부동산 설태우

우사·돈사·계사 매매 전문 전국 물건 다량 보유
010-8242-4406

계곡 저수지 저수지 접한 건축가능한 땅 당8만 9900㎡(3000) 접 최고뷰 전원주택지 대구인근 개발호재
2000㎡ 당35만 급매 010-9219-0481

농수산물 공판 정문에서 300m거리 대479㎡(145) 건142㎡(43) 당1300만. 북구 칠곡 중앙대로 97
053) 352-0809

청도군 매전면 집 다섯채 지을 수 있는 임야 21,818㎡
(6600) 1억8천 010-8383-3029

부동산교환

※교환 전문 상담
대지·상가·모텔· 임야 다량보유 010-3808-3415

기타부동산

스크린골프장 대992㎡(300) 건1560㎡(320)
상업지역 코너, 넓은주차장완비, 스크린룸×16개, 실내연습장, 3층신축 예정 매48억 (융40억可) 053) 812-8806
No. 4219-1346 경산시 정평동 부동산달인 강지예

분실공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100 월성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101동 2204호(계약자:문혜자) 아파트분양계약서 분실, 이 공고 이후 무효임.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2느단1132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정복재 (1954.8.6.생)
사 망 일 : 2022.4.17.
최후주소 :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57, 103동 107호(봉덕동, 1차대덕맨션)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7. 29.

청 구 인 : 권순분, 정성훈, 정지훈
주 소 : (권순분)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57, 103동 107호(봉덕동, 1차대덕맨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건번호 : 2022느단757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배무준 (1969. 01. 28.생)
사 망 일 : 2022. 3. 20.
최후주소 :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7길 18, 305호(글로리아)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 7. 29.

청 구 인 : (상속한정승인)배무광 (상속포기) 배순자, 배순임, 배부남, 배금이, 배순선, 배태숙, 배윤선, 배애연
주 소 : (배무광)경산시 자인면 서부길 54, 102호 (금석빌라)



한국결혼정보원
국제·국내, 초혼, 재혼
국제혼카 대구중구 2018-0001 국내.허 대구중구 2018-0002
010-3810-3003 ★독립 매니저 초청★
010-8181-8024 (옥소장 전문직 상담)
대구 중구 태평로 273

국내 전문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증보험 국가등록 대구2008-3호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01호)

울진 해양바이오농공단지 6년째 분양률 15% 그쳐

세제감면에도 달랑 5곳 입주
교통 불편·낮은 접근성 원인
"강점 살려 원자력 중점 개편을"
郡 "명칭·업종 개편 방안 검토"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해양바이오농공단지(이하 해양단지)가 조성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공장 부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선 신한울 1, 2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고 2024년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까지 예정돼 있어 해양단지를 아예 원자력 관련 산업단지로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진군은 해양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6년 8만3천여㎡ 공장 부지 규모의 해양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업체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분양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면적의 15%인 1만3천여㎡로 극히 저조하고 입주 업체도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해양바이오 관련 업체는 단 1곳뿐이고 나머지는 해양바이오 산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다.


울진 해양바이오농공단지 모습.

울진군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 관련 업종을 음·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 입주 희망 업체에게는 취·등록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까지 제공했다.

저조한 분양 원인은 교통불편에 따른 접근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업체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민들은 아예 해양단지를 울진의 강점인 원자력 관련 산업단지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울 1, 2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다 2024년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원전관련 업체를 입주시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유덕 울진군의원은 "해양단지가 조성된 지 6년이 되도록 분양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해양단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맞아 원전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2023년 농공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양단지의 명칭과 업종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최재훈 달성군수가 군수 집무실을 8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군민 중심 실용적 행정" 달성군 의전 거품 뺀다

행사시 군수 축사 간소화·생략
지정좌석제 폐지…약자에 배려
직원 복장 정장보다 간편복 권장

대구 달성군이 군수 중심의 전시적, 관행적, 고압적인 '과잉의전'에서 탈피하는 의전 간소화 매뉴얼을 마련, 시행에 돌입했다.

28일 달성군의 의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군수 중심의 권위적 과잉의전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군수의 축사 등 인사말을 3분 이내로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기로 했다. 또 군수 소개 시 수식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종 행사나 회의 시 군수나 기관장들의 지정좌석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맨 앞줄에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배려토록 했다. 단체회원 등 관행적 인원동원은 지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군수의 각종행사 방문 시 직원들이 도열해서 영접하거나 환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장방문 때도 미리 보고된 인원만 나오도록 했다. 직원 복장의 경우도 업무보고나 회의 시 정장보다는 간편복을 권장하고 있다.

최재훈 군수는 취임후 1호 결재로 '군수실 이전 계획'에 서명하고 8층에 위치한 군수 집무실을 3층으로 이전키로 했다. 군수전용 차량도 기존 고급 세단인 3천300cc에서 2천200cc 차량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의전 간소화 매뉴얼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의전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 중심의 실용적인 의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의전 절차를 수시로 개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성우 기자 swkim@imaeil.com

성주 참외, 생산 줄어도 수익 늘어

올해 18만여t에 조수입 6천억
1억 이상 이익 농가 매년 증가

국내 참외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참외가 매년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조수입(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 참외 생산량은 2019년 18만8천384톤(t)·조수입 5천50억원, 2020년 18만6천501톤·조수입 5천19억원, 2021년 18만1천462톤·조수입 5천534억원, 올해(10월 집계 예상) 18만1천여 톤·조수입 6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주군은 참외생산 기술의 고도화, 고품질 참외 생산, 적극적 유통 지원 등이 조수입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참외가 본격 생산되는 2~4월 사이 국내 과일 가운데 경쟁 상대가 없는 것도 성주 참외 가격의 고공행진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50여년 간의 참외 재배 기술을 보유한 성주 참외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외와 비교해 아삭한 식감과 당도(평균 13~14브릭스 초과), 게르마늄, 미생물, 꿀벌 농업 등 최고 수준을 유지, 소비자들이 성주참외를 선호하고 있다.

올해 성주 참외는10㎏ 1상자 당 1월 8만7천500원, 2월 5만9천250원, 3월 6만4천40원, 4월 5만5천840원 등 높은 판매가격을 형성했다.

성주지역 3천800여 참외 농가 가운데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농가는 2013년 1천농가이던 것이 2021년 1천230농가, 지난해 1천612농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yong126@imaeil.com


오는 30일 임시개장을 앞둔 선비세상 전경. 영주시 제공

에헴~ 영주서 입고·먹고·체험 '선비세상'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료개장
다양한 공연·플리마켓·축제 열려

경북 영주에 조성한 K-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이 오는 9월 3일 정식 개장한다. 이달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료 임시 개장한다.

선비세상(SUNBEE WORLD)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선의 선비처럼 자고, 입고, 먹고, 익히고, 즐기는 선비정신 함양과 함께 K문화를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영주시는 지난 2013년 사업비 1천694억원(국비 776억, 도비 105억, 시비 540억, 민자 273억)을 들여 순흥면 청구리 선비촌 인근 부지 96만970㎡에 K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 조성공사에 착공, 지난 1월 준공했다.

'선비세상'은 한옥과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 등 6개 테마촌과 공연장인 '풍류홀' 야외무대, '선비마당' 행사장, '선비 컨벤션홀' 등을 갖추고 있다. 영주시는 임시 운영기간 관람객들을 위해 힙 선비 크루들의 퍼포먼스 공연과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인 풍류한마당, 뮤지컬디바 전수경과 홍지민, 웅산의 재즈공연이 어우러진 뮤직콘서트, 플리마켓과 저잣거리 페스티벌 등 다양한 스페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시 개장 동안 관람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능하고 하루 1천500명(인터넷 사전 접수 1천명, 현장접수 500명) 제한한다. 일반 관람객은 다음 달 11일까지, 2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이달 29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한국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옛 선비들의 지혜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마경대 기자

구미사랑상품권 100억 발행
1인 최대 40만원 구입 가능

구미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 1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10% 할인 판매를 한다.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은 '착한페이' 앱을 통해 구매(충전)할 수 있다. 구미사랑카드 발급은 지역은행(농협·대구은행·새마을금고·하나은행·신협) 방문을 통해 당일 발급 가능하다.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지역 가맹점 1만4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와 구미사랑상품권 어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희 기자

NH 충북인삼농협 농협 301-0253-2226-11 예금주 : 주식회사 옻이랑 문의전화: 1588-3398
무료배송 / 신용카드 가능(할부가능) / 24시간 주문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삼성화재

누적판매 1,000,000포! 블랙푸드 흑염소 밀리언셀러 달성! 2021~2022년 6월까지

★★★★★ 1,000,000 포 달성을 도와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누적판매 백만포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고 드셔보십시오!

자연에서 온 블랙푸드 名品 흑염소

여름을 위한 신의 한수!
100% 국내산 흑염소와 6년근 홍삼,
갈근, 대추, 당귀…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땀이 줄줄, 지치고 힘들때…
흑염소 한방!
여름 극복!



기업체·모임·동호회 단체선물 특별행사 접수중

80ml×30팩×2박스
2박스(60포) ₩99,800 → ₩69,800
4박스(120포) ₩199,600 → ₩128,000
행사기간 : 2022년 8월 31일 까지

NH 충북인삼농협
충북인삼농협은 제품이 아닌 정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삼농협은 항상 품질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몸에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유통과 금융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입니다. 숨쉴 틈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건강관리는 필수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인삼농협에서는 소비자분들이 쉽고 간편하며, 저렴하게 좋은 품질의 농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신념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켜가겠습니다. 100% 국내산 흑염소와 6년근 홍삼으로 만든 블랙푸드 흑염소를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충북인삼농협 충북인삼농협 조합장 이규보



맑은 산 속에서 자연방목한
국내산 흑염소를 엄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건강한 흑염소, 活力있는 오늘을 위하여!

충북인삼농협 명품 흑염소는 특별합니다.
1 100% 국내산 건강한 흑염소만 사용합니다. 국내산 6년근 홍삼을 더해 더욱 건강하게!
자연방목으로 키운 국내산 흑염소와 국내산 6년근 홍삼(홍삼근 70%, 홍미삼 30%)에 갈근, 대추, 당귀 를 배합해 맛과 영양이 진하고 담백합니다.
2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격인 흑염소! 뛰어난 효능의 아라키돈산까지 가득!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흑염소는 고단백, 저지방 음식으로 보양식의 으뜸입니다. 게다가 50대 이상 성인에게 필수 성분이지만, 체내 생성양이 적어 따로 섭취가 필요한 아라키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블랙푸드 흑염소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제조원 : 농업법인(주)옻가네 /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43 유통전문판매원 : 충북인삼농협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부로 2456

“경기 더 나빠질 것” 심리지수 100 아래로

7월 대구경북 소비자동향조사

수입·취업기회·주택값 하락
금리·물가 오를 것으로 예상

7월 대구경북 소비자들은 취업 기회가 줄고 주택가격, 가계수입은 하락하는 반면 금리와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7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표본 가구 수는 600가구(응답 563가구)이고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8로 전월(100.5)보다 8.7포인트(p) 하락했다. 4, 5, 6월 모두 100을 넘겼다가 이번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전국 평균(86.0)보다는 5.8p 높은 수준이었다.

생활형편 관련 CSI와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 CSI는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지표. 현재생활형편CSI는 83으로 전월보다 4p, 생활형편전망CSI는 80으로 전월 대비 11p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4, 소비지출전망CSI는 109로 각각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한마디로 현재도 어렵지만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묻는 현재경기판단CSI는 49로 전월보다 19p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도 56으로 전월 대비 22p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CSI는 75로 전월보다 16p 낮아졌다. 현재경기가 전보다 더 나빠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취업 시장도 지금보다 더 활기가 돌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금리수준전망CSI는 148로 전월보다 3p 올랐다. 물가수준전망CSI도 159로 전월 대비 3p 올랐다. 또 주택가격전망CSI는 80으로 전월보다 16p 하락했다.

현재가계저축CSI(86)과 가계저축전망CSI(89)는 각각 전월보다 1p씩 떨어졌다. 현재가계부채CSI는 99로 전월 대비 6p 하락했고, 가계부채전망CSI는 99로 전월보다 3p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많다 보니 지역민들도 앞으로 경기를 낙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CCSI(소비자심리지수)=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 장기 평균치(2003년 1월~2021년 12월)를 기준값(100)으로 둔 뒤 이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주가·원화가치 동반 상승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74포인트(0.82%) 오른 2,435.27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2포인트(0.33%) 오른 798.32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7.2원 내린 1,296.1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산업 맞춤형 인재 5500명 양성 ‘지역혁신사업’ 출범

지자체·대학, 교육체계 개편
5년 간 국비 등 3312억 투입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손을 잡았다.

대구시는 28일 경북대에서 대구경북 지역혁신사업(RIS)의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기업과 연계한 대학교육 체계 개편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게 목표다. 행사에는 장상윤 교육부차관,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등과 대학,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시는 경북도와 함께 2022년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돼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향후 5년 간 모두 3천312억 원(국비 2천318억 원, 시비 497억원, 도비 49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후 지자체-대학 지역혁신플랫폼 협약을 체결, 경북대 산하에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가 신설된 상태. 협약은 시와 경북도, 경북대, 한국연구재단, 지역협업위원회, 경북대 총괄운영센터 간 맺어진 것이다. 시는 참여 기관 간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협조 체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별도 정원 2명을 확보, 파견했다.

앞으로 지역산업과 연계, 교육체계를 개편해 연간 1천10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 핵심 분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선도기술과 핵심기술을 개발, 실증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기대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 취·창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혁신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혁신, 산업혁신을 이루고 대구경북 재부흥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DGB금융 상반기 당기순이익 2855억원

大구銀 12%·캐피탈 18% 증가

DGB금융그룹의 2022년 상반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이 2천855억원을 기록했다.

DGB금융그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DGB생명의 보증준비금 적립 관련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해 전년 동기 실적에 290억 원이 소급 합산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제외한 실질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2천152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미래 경기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약 395억원의 선제적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최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신용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구은행 경우 주요 건전성 지표인 NPL비율과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올해 연간 실적 전망도 밝다는 게 DGB금융그룹 측 얘기다.

비은행 계열사인 DGB캐피탈도 꾸준히 영업자산이 성장,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45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반면 하이투자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25.7%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품 운용 관련 손실이 발생했고, 주식시장 또한 침체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자가증폭 mRNA 백신 메디허브 연구 나선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 지원사업의 기반기술 구축’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안전성평가팀의 차복식 선임연구원은 ‘감염병 치료를 위한 신규 자가증폭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현상) 이후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제, 백신 개발 연구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시점. 기존 mRNA 백신보다 효과가 우수한 신규 자가증폭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해 언젠가 다시 찾아올 팬데믹을 대비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게 케이메디 측 기대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감염병 외에도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자가증폭 mRNA 백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DGB Index 〈28일〉

코스피	2,435.27	(+19.74P)
코스닥	798.32	(+2.62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3.130	(+0.040%P)
환율 (원·달러)	1,296.1	(-17.2원)
금값 (1g)	72,870	(+220원)

DGB대구은행 DGB
증권연계계좌를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14개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가능
-공모주 청약부터 해외주식 투자까지증권연계계좌로 가능
+체결전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151호 (2021.04.01~ 2022.03.31)

알뜰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벌목 임업 전문 위험수목 제거
태양광모듈 청소·예초기
(주)푸른임업 · 벌초
053)424-6567, 010-8773-6567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위민행정사
대표행정사 : 박 희 명
내용증명, 합의서, 진정서, 탄원서, 각정고민, 국가보훈업무, 행정심판, 각종민원서류, 출입국업무
※북한이탈주민 상담 우대
수성구 수성로76길 10 (대구시 교육청 정문앞)
전화 : 010-8562-4962, 633-6016

조적(벽돌) 공사 전문
적벽돌,파벽돌,큐블럭, 와이드벽돌, 디자인 블록, 농촌 담당(스프릿 블록) 견적 문의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가온건축 (053)-767-0404
대구 수성구 파동로 119

진산철학관
사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성, 병명없이 고생하시는 분.
친절상담, 즉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 달서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칠·방수
※ DPI 도색 전문 ※
노출 콘크리트 내·외부 시공
건물·주택·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 회사 공장바닥 에폭시 시공, 기계도색, 쫄라톤, 무늬코드, APT 내·외부공사, 실내·외 도색
성진도료(삼화 페인트 대리점)
053)552-7217, 010-3507-7216
대구 서구 내당동 297-18

계령철학원
작명,사주,궁합 택일,사성 풍수 (이장,가족묘원전문)교육생 모집
대한역학인연합회 회장
대구 달서구 죽전로18 (감삼동 46-15)
www.namdosa.com
053-568-2525 (010-3814-0200)

풀칼라 LED전광판
◆공장도 판매◆
풀칼라동영상시대 / 기존삼색 / 보상매입
시공 / 견적문의 / 상담환영
국제LED ☎ 1877-3166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 · 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고화질 최신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31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가발명장 1호 천 정 일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120만
30년 연구한 가발!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증서)
셀모가발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대구 집값 -1.42%, 하락폭 커질 것"

KDI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지방 5대 광역시 매매가 뚝
전년 대비 거래량 40.6%↓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 기인

대구와 대전을 중심으로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는 분기별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지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대구(-1.42%·전 분기 -0.92%)와 대전(-0.3%)을 중심으로 -0.05%(전 분기)에서 -0.23%로 하락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대구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대구(-53.2%), 대전(-51.1%), 부산(-45.4%) 등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5대 광역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6% 감소했다.

KDI는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매매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대구(6천800가구)는 수 개월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북도 6천500가구에서 5천400가구로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대구와 대전을 중심으로 전 분기(-0.1%)보다 낮은 상승률(-0.4%)을 기록했다. 대구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의 영향을 받아 1.99%가 감소해 전 분기(-0.99%)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KDI는 "현재 주택시장 조정이 장기화하는 것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출금리와 금리 경로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다"며 "기준금리 상승 배경인 물가 상승, 높은 건설비용 등은 임대료에 상방 압력으로 서서히 작용할 수 있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진짜 같은 동물 인형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내달 16일까지 9층 주라지에서 '한사토이'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한사토이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어른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며 실제 동물과 흡사해 박제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동물 인형을 선보인다. 대구신세계 제공

상위 기업 1,000곳 법인세 40조원 육박

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1조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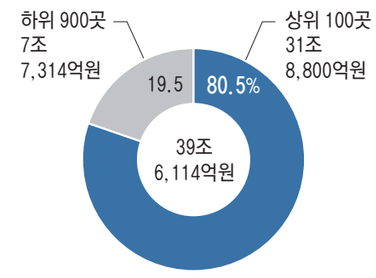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를 많이 낸 1천대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0개 기업의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천개 기업 전체 법인세의 80%에 달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년 1천대 기업 법인세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지난해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법인세 비용이 많은 상위 1천개 기업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많이 낸 국내 상장사 상위 1천개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9조6천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0개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1조8천800억원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을 낸 곳은 60곳이었으며, 이 중 3곳은 '법인세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삼성전자(7조7천335억원)였다.

2021년 국내 상장사 100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 한국CXO연구소〉



상위 1천대 기업이 낸 법인세 5분의 1가량을 삼성전자가 낸 셈이다. SK하이닉스(3조5천632억원), 포스코홀딩스(1조8천25억원)도 법인세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이어 법인세 상위 10에는 LG화학(7천999억원), 기아(7천281억원), 기업은행(6천961억원), SK이노베이션(6천61억원), 네이버(5천646억원), 현대제철(5천620억원), 삼성물산(5천18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는 17조5천746억원으로, 1천대 기업 전체 법인세의 44.4%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中 제로 코로나에 K-뷰티 흔들…2분기 실적 줄줄이 타격

아모레퍼시픽 북미·유럽 공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2분기 국내 주요 화장품 회사들이 줄줄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해외 사업 매출이 2천97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의 4천452억원보다 33.2% 줄었다. 영업손실도 42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됐다.

아시아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영향이 컸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설화수 등 럭셔리 브랜드의 면세 매출도 하락하면서 국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대표 브랜드 '후'의 2분기 매출이 33% 감소하면서 뷰티(화장품) 사업의 매출은 23.6% 줄어든 8천530억원, 영업이익 역시 57.4% 감소한 93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상하이 등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생산과 물류, 매장 운영이 제한되면서 오프라인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시장 다변화를 위해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 2분기 북미 시장의 매출이 66% 확대됐다. 유럽에서도 라네즈의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이 15% 늘면서 영업이익도 개선됐다.

다만 LG생활건강은 면세와 브랜드 '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메리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지난해 매출 중 면세가 41%, '후'가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국제뷰티실습센터 모습.

한투증권, 공매도 표기 누락 과태료 10억원
신한금투, 업틱룰 제도 위반 7200만원 부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고 공매도 표시를 누락해 발생한 단순 과실"이라며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천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건은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벽체 방수

노후된 건물을 신축처럼! 드라이비트, 인조석, 타일 방수 전문



뒷면 벽체 타일 보수



측면 특수 방수 및 도장



정면 완공 모습



인조석 건물



적벽돌 건물



싱글타일 지붕

옥상 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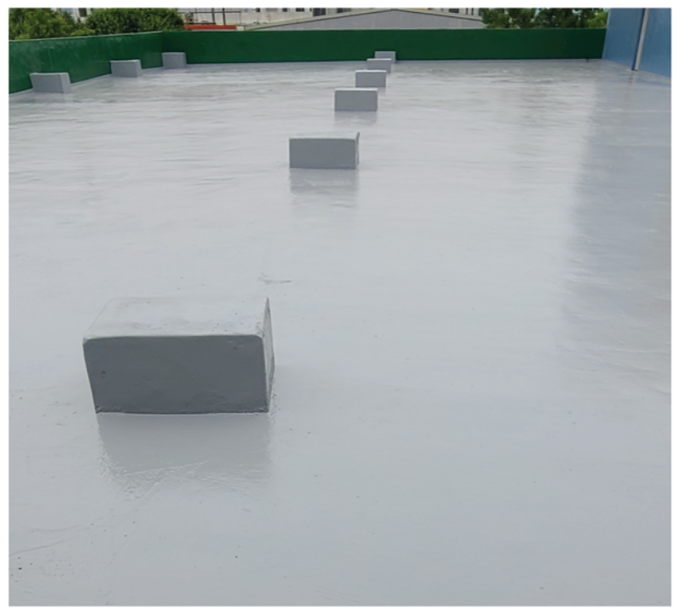
견고하고 오래가는 방수! 부분 수리 가능!



시공 전



방수 후



완공

시공 건물

빌딩 상가 원룸 주택 아파트 교회 창고 학교 유치원 병원 호텔 등

방수한 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 상담 / 공장 상가 우사 등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

방수와 칼라

대표 1566-4158

현장 010-3525-4498

점심값 2만원! 편의점 없었으면 어쩔 뻔…

런치플레이션 시대 '직장인의 구세주' 부상

편의점이 고물가 시대를 이겨내는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르자 가성비 좋은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2분기보다 15포인트 하락한 84로 집계됐지만 편의점(103)은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넘겼다. R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기업이 많다는 뜻인데, 소비심리가 위축된 백화점(97), 대형마트(86)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이커머스 업체에 밀렸던 대형마트들은 곧이어 편의점과 경쟁하게 됐다. 마트는 당장엔 정부의 면세 정책 이용해 사룟값 급등으로 비싼 수입산 육류 등을 초저가로 선보이고 있다.

◆점심값 2만원 시대…편의점으로 간다

밥값과 커피값을 더하면 1만원이 아닌 '2만원 시대'가 오자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편의점들은 간편식을 다양한 메뉴로 구성한 PB(Private Brand·자체 상품)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말 초저가 상품 브랜드 '굿민'을 출시했다. 두부(300g)는 1천200원, 콩나물(300g)은 500원 하는 식이다.

GS25는 지난달 GS더프레시(슈퍼마켓)의 초저가 PB상품 브랜드인 '리얼프라이스'를 편의점에 들였는데, 키친타월·위생장갑·위생팩 등이 통상 가격의 20% 정도 더 저렴하다.

이마트24는 PB상품 브랜드 '민생시리즈'를 통해 대용량 음료나 300원짜리 김, 500원짜리 컵라면을 선보였다. "마트만큼 싼 게 아니라 마트보다 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고물가에 편의점 '구독 서비스' 등장

편의점에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주요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고물가에 인기다.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최근 점심값 지출이 높아진 상황을 의미하는 신조어)'으로 편의점 도시락·커피 등의 수요가 높은데, 이를 중심으로 할인하면서 '편의점이 저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마트24에 따르면 구독서비스 이용 건수는 이번 달에만 전월 동기 대비 133% 뛰었고, 지난달은 5월 대비 62% 증가했다.

◆1~2인 가구엔 소포장 상품이 매력

소포장 상품이 잇따라 나오면서 1~2인 가구 사이에선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싸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일·족발·편육 등 1인분용 식품을 편의점에서 조금씩 자주 살 수 있는 이유에서다. CU는 지난달 감자·양배추·모둠쌈 등 식재료를 소포장한 '싱싱생생' 15종 상품을 내놨는데, 가격은 900~4천500원 정도로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저렴하다.

편의점 관계자는 "고물가에 집밥을 해 먹겠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1~2인 가구가 마트에서 식자재를 산 뒤 남은 재료는 신선도 탓에 사실상 버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포장 상품이 이들에겐 훨씬 더 저렴한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 매출, 작년 대형마트 제쳐

다양한 간편식 출시에 힘입어 지난해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은 유통업 매출 구성비에서 15.9%를 차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매출(15.7%)을 넘겼다. 집 인근 어디에나 있는 편의점은 코로나 시대 주목받았지만 마트는 배송에 특화된 이커머스에 밀려 성장세에 제동이 걸려서다. 특히 마트는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법적으로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해야 하고 새벽 배송이 불가능했다.

마트보다 싸다
콩나물·컵라면 500원, 김 300원
도시락·커피 구독신청하면 할인
1인분용 소포장 제품 900원부터

마트 매출 추월
가성비 좋은 간편식 수요 급증에
편의점, 업계 유일 경기전망 맑음
마트는 정육 '가격 파괴'로 대응

◆마트는 시장·이커머스에 편의점과도 경쟁

대형마트는 엔데믹 이후엔 편의점과도 경쟁하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높은 물가에 '마트보다 편의점이 싸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다. 당장엔 마트들은 정부의 면세 정책을 이용해 이른바 '가격 파괴'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이어 수입산 소고기와 닭고기 등 품목에도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1~27일까지 미국산 부챗살(100g) 등을 기존 판매 가격 대비 40% 저렴한 1천990원에 선보였다. 지난 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이 된 캐나다산 삼겹살은 20% 더 싼 1천580원에 판매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산지 어디든 비싼 탓에 마트가 정부 혜택을 제외하곤 초저가 상품을 내놓긴 힘들 것이다. 이커머스에 이어 편의점까지 마트의 경쟁자가 됐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마트가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폐지를 원하는 이유"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고물가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점심 비용 부담이 커지자 가성비 좋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소포장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편의점을 찾은 고객이 진열된 도시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와퍼, 오늘부터 6900원

버거킹 제품 46종 가격 4.5% 인상

최근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외식비가 급등한 가운데, 버거킹이 또 가격을 올린다.

버거킹은 오는 29일부터 제품 46종의 가격을 평균 4.5%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3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2.9% 올린지 약 6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제품별로 보면 대표 메뉴인 와퍼는 6천400원에서 6천900원으로, 통치킨버거는 4천4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와퍼 주니어는 4천4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오른다.

와퍼의 경우 지난 1월 6천100원에서 6천400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이번에 500원이 더 올랐다. 6개월 새 800원이나 오른 셈이다.

버거킹 관계자는 "물류비와 원재료비 등 제반 비용이 증가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년 만에 제품 가격을 2차례 이상 올린 버거 프랜차이즈는 버거킹뿐만이 아니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도 작년 12월 약 60여 개 제품 가격을 평균 4.1% 올린 데 이어 지난달 81종의 가격을 평균 5.5% 더 인상했다.

KFC도 지난 1월 징거버거와 오리지널치킨 등 일부 제품 가격을 100~200원 올린 후 지난 12일 200~400원 추가 인상했다. 연합뉴스

"마트 휴업 폐지, 왜 투표로 정하나" 소상공인 단체 "생존권 직결" 반발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자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정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각 주체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대통령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투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 결정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심의필번호 : 제151023-중-29959호

홈페이지 대구유림한의원

성기능 저하

발기부전·조루·성욕감퇴
피로·지구력 부족·낭습·수족냉증·정액결핍

무리한 성생활로 신휴하면 건망, 불면, 현기증, 이명, 오심번열, 무기력, 자신감 결여 등이 올 수 있다.
몸이 피로하고 성기능이 떨어지면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 말고 조기치료를 하시오.
43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정력증강과 피로를 풀어 신기를 튼튼히 하여 성생활 개선은 물론, 건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전립선염·비대

야간뇨·빈뇨·잔뇨·무력뇨·급박뇨
유뇨·회음부통

소변의 고통이 삶을 포기하고 싶도록 괴롭지만,
치료는 잘 안되고 특히, 전립선염은 재발까지 잘 된다.
치료를 게을리 하면 신·방광 등이
나빠질 수 있으니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43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원인과 증상을 면밀·분석하여 허한 신기를 도와 소변의 불편은 물론 성기능 저하도 개선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감퇴된 성욕과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조루치료를 통해 자신감 회복과 생활의 활력을 유림한의원에서 찾으십시오.

유림한의원 원장 조 남 학 대구 남구 대봉로 19길 20-2(구.남도극장 앞) 상담문의 053.474.5166

김정은 "선제타격 시도 땐 尹 정권·군대 전멸" 위협

1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
"어떤 위기도 대응 철저 준비 미국과 군사적 충돌도 대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연설 대통령 이름 거론 강력 비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전멸'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하며 남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대북 적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어떠한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히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전날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면서 전문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직접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며 이처럼 강한 수위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 만은 없다"고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뒤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을 향해서도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6·25전쟁 전사자 묘역인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군 간부들과 함께 참배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지난 8일 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문간부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19일 만이다. 연합뉴스



홍수 탈출하는 파키스탄 남서부 주민들 2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라스벨라에서 주민들이 구조대의 도움으로 밧줄을 잡고 폭우로 침수된 지역을 탈출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이례적으로 강한 우기 홍수가 덮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연합뉴스

中 매체도 사드 압박 "3불정책 약속 지켜라"

중국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사드 3불' 유지를 촉구하자 관영매체가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드 압박에 가세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시절 표명한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삼각동맹에 불참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드 3불은 상호 신뢰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3불 정책이 중국과의 외교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을 겨냥해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도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사드 3불은 중국과 한국 간 소통의 중요한 결과물로,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이자 중국에 대한 약속"이라며 "사드 3불 약속을 철회하면 양국관계와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정책을 만들어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도 소개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드 3불 유지를 공개적·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필리핀 지진 사상자 130명 넘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지난 27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1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팀발 국가재난국 대변인은 지금까지 파악된 지진 관련 사망자는 4명이며 부상자는 13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루손섬의 산악지대인 아브라주에서는 전날 오전 8시43분께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 아브라주에는 총 2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WHO "원숭이두창 확산세…1만8천건 넘어"

사망자 5명 모두 아프리카 지역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가 78개국에서 1만8천건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발병 사례의 70% 이상은 유럽 지역에서 보고됐고, 25%는 미주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숭이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모두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됐으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전체 발병자의 10% 정도라고 덧붙였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5월 이후 발견된 원숭이두창 감염사례의 98%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발 빠른 뉴스"
안드로이드용 매일신문 앱 아이폰용

포스코, 인도네시아에 4조6천억원 공동투자

인니 정부·철강사와 MOU 체결
현지 합작회사 제2고로 등 추진
신수도 건설 그룹사 참여 검토

포스코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철강 생산 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新) 수도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 에릭 토히르 공기업부 장관, 실미 카림 크라카타우스틸 사장 및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약 4조5천600억원)를 투자해 2014년 가동을 시작한 크라카타우포스코의 제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한 일관제철소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북서쪽 100Km 거리의 찔레곤 지역에 있다.

현재 연산 300만t(톤) 규모의 고로 1기와 후판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크라카타우스틸의 현물출자를 통해 열연공장도 갖출 예정이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크라카타우포스코에 고로 1기를 추가 건설해 연간 조강량을 600만t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강판 생산 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도 참여한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수행한 포스코건설 등 그룹사가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라카타우포스코 고로 신설 등 철강 사업 확대 및 신수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법인부동산

서 구

대동부동산(서윤희,서구564-8200)27170-2022-00031
하빈봉촌리공장 도로 10M
마당넓은집 대1200,건500
(투자 적지) 당175만원 010-9007-8283

월1950 대720,건2170,주차완벽
스타벅스 37억인수,프랜차이즈入
35억인수(초역세권)010-2509-9996 월2000만,건380 최고상권,대로코너

자연녹지IC근접
화원 물류창고 등, 12,000㎡
당480만, 부동산사절
053) 284-0118

안의 용추계곡 펜션+가든
용추계곡 최고 명당자리,시설완벽
몸만가서 장사하면 됨, 매20억
(조정불가) 053)284-0188

대지부동산(임유현,서구561-6561)27170-2016-00067
카 모텔,3억인수(융13억有)
모텔 대260,R18실,주택有,동구
270,상가240만수입 사우나 7억인수(융有) 직영중,시설양호,대 053)561-6561

모 텔,12억인수(융有),R38
모텔 대320,시설 및 매출양호
상가수입900별도 12억인수,(융有),대215 룸36실, 매출5500 053)561-6561

모 텔13억인수,융有,대209,R33
호텔 배관까지올리모델링,매출5500
시설최상 23억인수(융有) 대350 룸48, 준신축 053)561-6561

호 텔26억인수융有대3100,R53
콘 실,신축수준,매출1억이상
임대수입 별도 도,33억 인수,(융有) 최고위치,년매12억이상 053)561-6561

대능부동산(김영기,서구521-4949)27170-2019-00025
모텔매매 17억 대2,260㎡
객실46,(융.보별) 月매1억이상
★모텔임대,객36,보5억,月1500 053)521-4949

모텔매매 7억(융별) 대775㎡
객실30, 역주변
★모텔,10억(융별)대1066㎡,객실35 터미널 주변 최상 053)521-4949

온누리부동산(양현석,서구오이길-공시공공)27170-2020-00012
★1호선 초역세권 상가부지 대800㎡
병원, 사옥적지 위치최상 010-3851-5504

2호선 코너 통상가 35억/月1470出 E/V有 주차장
목좋은 황금상권 010-5432-9578

대단지코너상가주택 9억/月302 出, 주차장有, 도시가스, 대191㎡
임대걱정없는상권 010-5432-9578

시세이하카페건물 투자금15억 매13억 방갈로와
멋진뷰,대1792㎡ 010-5432-9578

카페 계곡접 현풍
5,600㎡, 3.3㎡당170만, 계곡접 가창4차선접,2080㎡, 3.3㎡당600만 053)572-0408

★6억인수,月370만
시장코너,시세이하,3층 통상가 대319㎡,급매,유동인구 완전 많은 정말 탐나는 상권 010-9357-5675

★9억인수,月720만
5층통상가,대로네거리코너,대234㎡ 올수리,주차장,엘베有,유동인구多 특급 상권 010-9357-5675

2호선코너특급상가
22억 月801만
목좋은 노다지 황금상권 대349㎡,건1022㎡010-9760-5069

연수익5.3%메디컬 빌딩
102억 月4,500만, 융자無 약국 입점, 대587㎡ 건3,632㎡ 010-8896-4599

감정가대비폭탄인하 통상가 초역세권, 땅넓음 대1005㎡, 사옥강추
65억,月2200만 010-8896-4599

초역세권 전면최상 통상가 대565㎡,역출구앞 특급바글상권,공실無
39억,月1,600만 010-8896-4599

감정평가이하 코너상가 초급매, 대357㎡ 특급 먹자상권,공실無
17억, 月630만 010-8896-4599

프랜차이즈,병원 7층상가 중심상업지,신축코너 초대단지숲,대537㎡
80억,月2900만 010-8896-4599

달구벌대로 통상가
및 나대지, 50억~300억
달서구, 수성구, 초역세권
A급물건,다량확보 010-4501-3935

다이소入4층통상가
보2억5천, 月1670만, 대745㎡ 신축급, 20억5천인수
전속중개 010-3134-9375

(주)삼성부동산(조정현,서구568-8989)가-13-1978
8층병원 약국"상가
대577㎡,연2713㎡,대로35M, 역출입구,대단지A,병원운영최요지 보.융안고,40억인수 053)557-9770

함안공장 임야급매"
대지15,100㎡, 연2,711㎡ 임야79,000㎡ 포함, 개발가능 당200만,月1700만出 053)557-9770

모텔"급매물"
방10개,상가2칸,3층통상가, 올수리 도25M코너"월세 잘나오는 통상가" 月600만+,3억인수 053)557-9770

3층 통상가
대지815㎡,대로35M 교통편리 사옥추천"시세차익 투자 귀한매물 月600만,몽땅40억 053)557-9770

신축" 상가주택
대215㎡,엘베有,교통 생활권편리
6억인수 주인살고,月410만 053)557-9770

2호선"5층 통상가 역세권 대단지A
월1200만,18억인수 053)557-9770

월1500약국병원빌딩
대290㎡, 건990㎡, 25억인수 달구벌 대로접, 지하철 출입구접 010-6547-4488

월4700전층병원빌딩
42억 인수,대925㎡,건3800㎡ 전층 병원 입주
대로접 최요지 010-6547-4488

월9700전층약국병원
대1845㎡,건11,999㎡,100억인수 약국+병원7개,5만세대 최요지
사거리코너최요지 010-6547-4488

명도가능신축빌딩
대652㎡, 건999㎡, 15억인수 신축, 대단지A밀집지, 통째로사용 하실분 010-6547-4488

月1500,몽땅38억
대583㎡,건1269㎡,11억인수 대단지 정문 최요지 공실무, 신축 010-6547-4488

범어사거리 땅! 땅
대1650㎡,당5천만, 대810㎡,당6천만,범어사거리 최요지,중심상업지 약국+병원부지 010-6547-4488

검단 공장,대256㎡,몽땅6억2천
서변동 귀한평수공장/사무실有 공장,대360㎡(109) 다용도可(거주可)큰차
진입가,매5억인수 010-8062-6776

옥포 땅 신당리, 답1,653㎡ 당27만
급매 본리리 답803㎡,당50만 교항리 2,600㎡,당70만 010-8062-6776

달구벌대로상가주택
대55㎡,상업지역,역출구3분,작지만 실속있는 최고상권,살면서임대수익 최고,몽땅5억 010-9355-5056

공장, 갈산동 890" 당510만
부계면 창평리 611" 당30만
2차선접 053)568-8989⑯

특급상가 몽땅48억
대744㎡,건1,625㎡,月1670 出 대로코너,다이소,스크린,유명프랜차이즈入,사정상급매 010-2234-2892

특 급매 상가175억
대5498㎡,건4395㎡,2호선초역세권,대로코너 시세이하 매매,돈벌수 있는상가,상담환영010-2234-2892

급매매 상가 75억
대1464㎡,건3572㎡,초역세권 병원 프랜차이즈 최적,시세이하,사정상 급매,투자상담환영010-2234-2892

시세(감정)이하모텔
11억 (융有), 룸39실
대1,551㎡, 건2,584㎡ 053)568-8989⑪

★초대단지통상가
25억 月1165만,1만세대 역세권,E/V,대512㎡
건1214㎡ 053)568-8989⑪

月290,4층상가주택
대235㎡ 아파트정문최요지 수익성 안정된 상가
매12억5천 053)568-8989⑪

모텔 급매 대1171㎡,방33
몽땅75억
대1251㎡,3층통상가,투자or재건축 용의/대302㎡,3층상가,주30 x 20 月560,22억 010-8029-8118

(주)대진부동산(이승열,서구566-6400)27170-2020-00017
★신축 올병원 건물
月9000 보10억 안고 매180억,대1480㎡
건4941㎡,약국입점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대610㎡, 건1980㎡, 月1600만
매43억5천 보2억4천안고 053)566-4488

사거리코너5층상가
보5억안고,매60억,대522㎡,건1500㎡
月1700 프랜차이즈 입점 053)566-4488

월세 많은 4층상가
총12억8천月470出
대219㎡,도25x8접 053)556-3600

초역세권 특급상가
당3800 대1009㎡,상권확실 총62억인수,공실無
보16억,月2800出 053)556-3600

수 성 구

최선부동산(주)(우병선,수성741-0070)27260-2017-00216
장원·아너스 가든1,2,3차 경남을지명문
범어청구하이츠, 효성백년가약궁 라온2차,범어센트레빌, 빌리브범어 쉐르빌,아크로타워 053)741-0070

(주)경동부동산(한성규,수성1666-0577)가-16-3342
月1억出54억인수가
대4,270㎡, 건12,600㎡
통상가 (보11억,융자125억) 급매 1666-0577

스타벅스 급매매
보3억, 月12%, 대지 약2,591㎡ 건 약429㎡,매80억,융60억가능 17억인수가 1666-0577

★나대지 급매매
대지606㎡,건265㎡,9억5천
당520만 15m도로접 1666-0577

침산동 최요지 아파트 상가
급매,1층50㎡,2층330㎡,커피숍 및 프랜차이즈 최적지,17억5천 융80%可,5억인수가 1666-0577

남산동 나대지 급매
대330㎡,건125㎡,신축하기 좋은 부지, 재개발 지역투자, 13억7천 융80%가능 1666-0577

신천동 최요지 상가부지
대1,285㎡ 당3,300만,대도로변접
인근대단지ⒶⓅⓉ단지 1666-0577

중구 대신동 최요지
상가부지,급급매,대793㎡,4차선 대도로접,당1500만,조절가능(회사 사옥,골프장,커피숍등) 1666-0577

동 구

동행부동산(주)(하중욱,동구744-6767)27140-2022-00073
※부동1000㎡(303)
당130만 대구공항근 도12m,투자200%
전속 053)751-2800①

동구 신서동(주차) 빌딩
건2579㎡,月400만 (공기업 1년단위 계약함)
매7억 053)753-3600

♥법인·일반부동산 문의♥
☎ 053) 656-4448
FAX 053) 656-1118
대구은행 065-13-147595 (주)매일신문사

17면 계속

조선의 명운 경각, 내가 그 벽이 되겠소



김중기의
필름통

한산: 용의 출현

서사는 집중력 있고, 전투 장면은 스피드가 넘치고 스펙터클하다. 캐릭터 또한 적재적소에서 긴장감을 뿜어낸다.

충무공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중 '명량'(2014)에 이어 두 번째로 선을 보인 김한민 감독의 '한산: 용의 출현'(이하 한산)은 전작의 아쉬움들을 최대한 보완한 성공적인 속편이다.

1592년 음력 7월에 펼쳐진 한산도대첩을 소재로 하고 있다. 명량대첩 5년 전으로 임진왜란 발발한 해에 일어난 해전이다.

영화는 왜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변요한)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그는 용인 전투에서 일본군 2천명으로 조선군 5만명을 격퇴한 장수이다. 이순신을 격퇴시켜 보급선을 확보하겠다는 결의에 찬 편지다. 그는 파죽지세의 자신감에 가득 찬 인물이다.

그리고 거북선의 위력을 패잔병으로부터 듣는다. 듣도 보도 못한 귀신을 만난 듯 왜군은 겁에 질려 있다. 그 자리에서 패잔병들을 죽여 버린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공포라는 것을 안 것이다.

영화의 시작은 영리하다. 거북선의 위력을 왜군의 입장에서 들으며 그 공포의 강도를 높였고, 그가 만날 공포의 대상 이순신(박해일)에 신비감을 불어 넣는다. 그는 아직 이순신을 얕보고 있다. 왜군은 부산포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다. 왕 선조는 도읍을 떠나 평양으로, 의주로 피신해 버렸다. 남은 것은 관군이 아닌 의병이 고작인 나라에서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누구나 싸우기 전에는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만날 조선의 장수는 이순신이었다.

영화는 와키자카와 이순신을 대립시키며 용인의 전황을 한산으로 옮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용인전투는 최악의 전투였다. 이에 대한 분을 삭이며 한산에서 대폭발시키는 것이 영화의 주안점이다.

수군이 버티고 있지만, 조선의 명운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병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거기에 경상우수사 원균(손현주)과의 대립, 거북선의 손상과 약점 노출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해저에 내린 닻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결전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는 의(義)를 내세운다. 의와 불의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의로움 만큼 강력한 대의명분이 있을까.

전작의 스토리가 다소 어수선했다면 '한산'은 명료하다. 결전을 준비하는 두 진영의 긴박함과 첩보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거북선의 설계도가 넘어가고, 준비 중인 학익진의 진법도 와키자카가 간파한다.

충무공 3부작 중 '명량' 속편
용인 전투 패배의 분 삭이고
한산에서 1시간가량 대폭발

왜군 포커스 둔 긴박한 전개
'박해일'표 이순신 깊은 울림
전작의 아쉬움 성공적 보완

'한산'은 왜군 진영의 움직임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 와키자카와 지원군으로 온 가토 요시아키(김성균)의 갈등, 이순신에 감복해 투항한 항왜 준사(김성규), 히데요시의 책사인 구로다 칸베에(윤제문)의 등장 등 왜군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반면 조선 수군은 원균과의 갈등이 고작이다. 관객에게 익숙한 캐릭터를 부연 설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영화는 1시간 15분에 걸쳐 이러한 드라마에 공을 들인다. 그리고 이순신의 내면도 이미지화 한다. 바로 꿈속에서 본 거대한 벽이다. 함경도의 설원과 눈발 사이로 치솟아 이순신의 앞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벽이다. 그는 이 벽을 넘어야 한다. 아니 내가 벽이어야 한다.

긴장감이 어느 정도 숙성됐을 때 기다렸던 해전이 시작된다. 전체 러닝타임 130분 중 60여 분을 해전에 투입한다. 해전은 마치 헬기로 중계하듯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순신의 학익진과 고기 비닐처럼 겹친 와키자카의 어린진이 넓은 바다에 그대로 펼쳐져 진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선연하다. 대형선인 판옥선에 비해 속도가 빠른 왜군의 세키부네의 기능성도 확연하게 보여준다. 배 바닥이 평면인 판옥선은 암초에 강한 반면 뾰족한 세키부네는 암초에 끼인다. 화포의 위력도 압도적이다. 특히 비장의 무기 거북선이 등장할 때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배우들의 혼신의 연기가 돋보인다. 특히 항왜 캐릭터인 김성규의 연기가 돋보인다. 이순신을 연기한 박해일은 '명량'의 최민식과 다른 결을 보여준다. 왕의 버림과 가족의 죽음, 부하의 배신 등 복잡한 심정의 최민식과 달리 박해일은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과 결의를 잘 보여준다. 통상 고함으로 내지르던 "전군 출전하라!". 그러나 박해일은 나지막하게 내 뱉는다. 그럼에도 훨씬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한산'이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은 신파성을 걷어낸 때문이다. '명량'에서 해변에 있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는 장면 등 관객에게 영합하는 상투적인 장면들을 없앴다. 그럼에도 소위 '국뽕'에 취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순신이란 이름 그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위대함 때문일 것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평론가



새 영화

임파서블 러브



감독: 카트린 코르시니
출연: 비르지니 에피라, 닐 슈나이더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랑스 영화. 한 남자와의 짧은 연애 후 홀로 딸을 출산해 키우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렸다. 1950년대 말 사회보장국에서 일하고 있는 라셀(비르지니 에피라)은 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 필립(닐 슈나이더)과 사랑에 빠진다. "우리 사랑은 필연적인 만남이야." 라셀은 필립의 아이를 가진다. 그러나 필립은 결혼을 거부하고 딸마저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가 생겼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필립은 몇 년에 한 번 꼴로 라셀과 딸 샹탈을 만난다. 양육비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필립은 성장한 딸 샹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사랑의 이면에 남은 참혹함,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큰 사랑을 이야기한 문제작이다. 135분. 청소년 관람불가.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감독: 강승훈, 윤제완
목소리 출연: 이선, 이미자, 김현지

'공룡섬', '보물섬' 등을 통해 어린이 관객을 매료시킨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여섯 번 째 극장판. 대한민국 뽀로로와 친구들이 드래곤캐슬을 되찾기 위해 펼치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다. 깊은 산속 드래곤캐슬에 꼬마 드래곤 왕아서(엄상현)의 막강한 힘이 봉인된 보석 '드래곤 하트'를 빼앗아 왕이 되려는 수상한 마법사 게드(김혜성)가 나타난다. 우연히 '드래곤 하트'의 힘을 흡수한 크롱(이미자)이 자이언트 크롱으로 변하면서 뽀로로(이선)와 친구들 역시 위험에 처한다. 아서와 뽀로로와 친구들은 악당 마법사 게드로부터 힘을 되찾고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무적의 메카드래곤을 만들어 드래곤캐슬로 향한다.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청돼 '저 세상 패밀리상'을 수상했다. 70분. 전체 관람가.

배드 럭 뱅잉



감독: 라두 주데
출연: 카티아 파스칼리우, 클라우디아 이레미아

지난해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영화. 남편과 합의하에 찍은 섹스 비디오가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교사 에미(카티아 파스칼리우). 학생들 사이에서 비디오가 금세 퍼졌고, 이를 알게 된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에미를 해임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심판대에 서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던 에미는 결국 분노를 대폭발시킨다. 루마니아의 역사, 정치, 사회적 맥락이 담긴 감독의 연출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루마니아 부큐레슈티의 한 시내를 배회하는 에미의 하루가 1부에 담겼고, 약 70개의 주제로 인류의 위선과 폭력성을 지적하는 2부로 이어져, 3부에선 에미를 해임하려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의 마녀사냥이 펼쳐진다. 106분. 청소년 관람불가.

내일은 스타…네 꿈을 펼쳐라

2022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

8회째…3년만에 관객과 만나
장애부 신설, 총 800여명 신청
예선 통과 15팀 내일 결선 치러


이무진


'더스틴'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

'2022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이 30일 오후 6시 대구 달서구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두 드림 온 더 스테이지'(Do Dream On The Stage)를 슬로건으로 한 청소년무대예술페스티벌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경연을 겸한 축제를 펼침으로써, 예술꿈나무인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연을 펼쳤던 이번 축제는 올해 8회째를 맞아 드디어 관객들과 만나 경연을 치른다.

특히 올해는 장애부 경연 부문을 신설해 ▷실용음악 ▷실용무용 ▷국악 ▷연극 및 뮤지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장애부 80팀, 비장애부 250여 팀 등 총 800여 명이 신청했다.

이 중 동영상 심사와 비장애부 예선 심사를 거쳐 결선 진출팀 15개팀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대구시장상인 대상을 비롯해 대구시교육감상 등 총 1천910만원의 상금과 기념품이 수여된다.

30일 치러지는 결선에는 한국무용가 서상재와 30여명의 무용수들이 대거 출연해 예술인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의 과정을 그린 주제공연을 펼친다.

또한 특별초청공연으로 싱어송라이터 이무진, 5인조 아이돌 그룹 '더스틴', 댄싱 로봇 '맥봇' 등이 출연해 결선 무대의 뜨거운 열기를 북돋울 예정이다.

이창환 대구예총 회장은 "청소년들이 학교 강당과는 또다른 무대에서 문화예술의 주체자로서 갖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장애와 비장애 구분없이 청소년들의 꿈과 예술적 재능을 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차세대 안무가전…예선 통과 3人 경연

김도연·최연진·김윤지 참가
내일 대구문예회관 비슬홀


김도연 안무 '계단의 물매'


최연진 안무 'Battle'


김윤지 안무 'Nirvana: 시대로부터의 해탈'

무용인재를 발굴하고 신진 안무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제24회 전국 차세대 안무가전'이 30일 오후 4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린다.

전국 차세대 안무가전은 (사)대한무용협회 대구시지회(이하 대구무용협회)가 역량있는 무용인재 발굴과 창작활동 지원을 목표로 1999년부터 열고 있는 경연 무대다.

변인숙 대구무용협회장은 "전국 차세대 안무가전은 1차 전형을 통과한 안무가에게 무대공연을 위한 창작비를 지원하고 그밖에 공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협회가 지원한다는 게 전국의 여타 경연 무대와 다른 점"이라며 "역량 있는 젊은 안무가들이 작품에만 집중해 무대에서 실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엔 전국에서 참가한 7명 가운데 1차 예선을 통과한 3명의 안무가가 경연을 펼친다. ▷무용단 'KD.D' 한국무용 작품 '계단의 물매' 안무자 김도연 ▷'진 MUV 프로젝트'의 현대무용 'Battle' 안무자 최연진 ▷'프로젝트M'의 발레 'Nirvana: 시대로부터의 해탈' 안무자 김윤지가 참가한다.

경연을 통해 대상(대구시장상) 1팀, 최우수상(대구예총회장상) 1팀, 우수상(대구무용협회장상) 1팀을 가린다. 안무상 1팀과 연기상 3명도 함께 선정한다. 심사는 무용계 전문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하고, 경연 후 바로 결과를 발표한다.

관람은 무료다. 010-9357-8780.

김도훈 기자 hoon@imaeil.com

가족 발레극으로 변신 '늑대와 빨간두건'

화려한 조명·영상으로 쉽게 즐겨
내일 오후 5시 대구 서구문화회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발레극 '늑대와 빨간두건'이 30일 오후 5시 대구 서구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늑대와 빨간두건'은 프랑스 구전동화 '빨간 망토' 이야기를 발레로 풀어낸 작품이다. 대구시티발레단이 기획·제작한 이 작품은 2009년 9월 첫 공연 이후 꾸준히 대구경북 지역 가족 관객과 만나왔다.

작품은 숲속을 지나 할머니댁으로 가는 빨간두건의 여정을 그린다. 숲속에 사는 빨간두건과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는 계략을 세운다. 이들 주변에는 빨간두건을 돕는 착한 마음 요정과 방해하는 나쁜 마음 요정들이 등장해 극을 이끈다. 빨간두건은 착한 마음 요정들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구출 하고, 늑대도 잡는다. 결국에는 늑대도 잘못을 뉘우치고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춤을 춘다는 내용이다.


가족발레극 '늑대와 빨간두건' 공연 모습. 서구문화회관 제공

발레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와 연출, 다이내믹한 조명과 영상을 더한 풍부한 볼거리로, 발레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서구문화회관 측 설명이다.

대구시티발레단은 우혜영 영남대 교수를 주축으로 한 대구지역 대표 발레단이다. 발레극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작해 발레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무료 공연이지만 서구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티켓링크(ticketlink.co.kr)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36개월 이상 관람가. 053-663-3081.

김도훈 기자

매일춘추

반가운 만남


이경숙

냉장고가 배달되어 왔다. 반가웠다. 밖의 열기를 견디느라 상기된 얼굴을 보는 순간 미처 시원한 음료조차 준비 못한 자신을 나무랐다. 기사님은 설치할 위치를 확인하고, 냉동실의 음식물들을 꺼내는 일들을 능숙하게 도와주었다.

이미 냉기를 잃어버린 냉장실은 며칠 방치된 상태로 이끼처럼 푸른곰팡이 꽃이 보인다. 벌써가 아니다. 손꼽아보니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냉장실 깊숙이 차곡차곡 쌓인 떡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친구와 지인들이 싸준 음식들이 꽁꽁 언 채로 나왔다. 꺼낼 때마다 기억들이 외마디를 지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나물 반찬을 좋아하는 언니를 위해 동생이 삶아준 채소들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할 아이들을 위해 쟁여 둔 고기들이 나왔다. 문득 따뜻한 온기와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내게로 와 저렇게 얼려진 채로 외면된 것은 아닌지 살피게 된다. 바쁜 이삿짐 정리로 그대로 냉동실에 들어와 있는 이사떡처럼 바로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들이 무거운 차용증처럼 덜컥 마음에 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물건들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었다.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채워놓은 냉장고처럼 우리는 마음의 허기를 채우느라 이처럼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여전히 반짝이는 표면을 지닌, 10년 전에는 최신형이었던 냉장고와 이별을 해야 한다. 폐기 판정을 받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

전화를 걸었더니 출장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기자가 많아서 15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냉장고 출장서비스를 받는데 그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이삼일 정도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사가…"하고 싶은 무수한 뒷말을 애써 삼켰다. 항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이다. 전화를 받는 이는 또 무슨 죄인가? 대기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안내자의 말에 그저 망연자실했다. '냉장고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삶이었다니…' 상해가는 음식들이 걱정이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냉장고나 에어컨은 이 더운 날에는 빨리 고쳐주어야 하지 않을까? 보름이라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혼자만의 생각들이 오갔다.

다시 무언지 모를 설움에 목이 메어서 한 번 더 부탁한다. "조금 더 일정을 당겨 주실 수는 없을까요?" 간절함이 통했는지 연락을 드릴 테니 기다려 보라고 한다. 보름의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수리하러 온 기사님들은 냉장고의 폐기 결정을 내렸고, 냉장고를 사기까지는 또 며칠이 흘렀다. 출장서비스의 예약 날짜와는 다르게 새 상품은 빠르게도 배송되었다. 땀을 흘리며 묵묵히 설치하는 기사님의 휴대폰에 아이와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 더위에 나처럼 출장서비스를 기다리며 상해가는 음식 앞에서 발을 구르는 노인들은 없는지 갑자기 걱정이 앞섰다. 나처럼 다그치지도 못하고 그저 착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더위를 견디고 있지 않을까? 옛날 동네의 '소리전파사'나 '무엇이든 고쳐 드립니다'라고 써둔 친절한 간판들은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었다. 세련되게 분화된 이 구조 안에서도 그런 따스함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미리 바쁜 철을 피해 냉장고 사전 점검도 해주고 출장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마실 물이라도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전할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하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걱정이 새 냉장고와의 반가운 만남 앞에서 교차된다.

박물관 수 관장

접수 www.imaeil.com

2022 경상북도 관광사진 공모전

전국공모

접수마감 : 8월 31일(수)

| 공모분야 | 경상북도의 자연환경과 축제, 레포츠, 이벤트, 유·무형 문화재, 생활상 등 전반, 경상북도 웰니스(Wellness) 체험·관광 사진 (지역명소에서 요가, 명상, 트레킹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 등

| 접수기간 | 2022. 8. 31(수) 23시 59분까지

| 접수방법 | 매일신문 홈페이지(www.imaeil.com) 접속 후 사진공모전 배너클릭 후 등록
- 원본 파일을 3Mb 이상의 jpg 파일로 축소해 매일신문 홈페이지(www.imaeil.com) ⇒ 사진공모전 배너에 등록.
-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원본파일과 작품 설명 제출(원본파일은 3500×2000픽셀 이상일 것)
- 1인 4점 이내(출품료 없음) / 제목, 성명, 연락처, 촬영장소 명기

| 심사발표 | 9월 중 / 추후 확정
※ 심사 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후보작을 공지하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수상작 결정

| 전 시 | 2022. 10월 중, 경북도청 내 전시장 /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장소, 날짜 변경될 수 있음.

| 시 상 |

시상부문	상금	비고(총액)
대상 (1점)	300만원	300만원
최우수상 (1점)	150만원	150만원
우수상 (2점)	각 100만원	200만원
가작 (10점)	각 20만원	200만원
입선 (20점)	각 10만원	200만원

| 입상작의 사용권/저작권 |
주최 및 주관사는 선정된 작품의 지속적인 사용권을 가짐,
단,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출품자 유의사항 |
1) 출품자는 응모와 동시에 행사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이용·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입상작의 사용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하며, 상금은 세금 공제 후(원천징수) 계좌 이체함.
2) 주최 및 주관사는 경상북도 관광 홍보를 위하여 입상작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타 기관에 제공·활용(제작, 복제, 배포 :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SNS, 광고, 인쇄 등)할 수 있음.
3) 입상자는 주최 및 주관사 이외의 제3자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재산권 이용을 허락 하는 등 주최·주관사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4) 항공촬영(드론) 작품의 경우, 유관부서의 허가·승인, 항공안전법, 기타 관련 법적규제를 준수한 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촬영에 따른 일체의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5) 컴퓨터 합성(레이어 합성 포함), 조작한 사진과 타 공모전 입상작은 본 공모전 출품을 금지하며 발견 시 시상 후라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 환수 조치 함. 단, 통상적인 컴퓨터 색 보정은 유효함.
6) 출품작은 출품일 기준 3년 이내에 촬영된 본인의 작품이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작품을 출품할 수 없음.
7) 낙선작은 출품한 홈페이지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 후 일괄 삭제 함.
8) 출품작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등의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9) 특별한 이유없이 수상을 거부할 경우 향후 본 공모전 참여를 제한 함.
10) 그 외 사항은 국내 사진공모전의 통상적 관례와 상식에 근거해 주최 측이 결정함.

| 문의 | 매일신문사 문화사업국 사업부 ☎ 053-251-1414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每日新聞


2021 대상 수상작 – 이복현의 해안 스카이레일

한국형 新무협 중국을 넘는다



드라마 '환혼'의 한 장면. tvN 제공

정덕현의 엔터 인사이드

남다른 세계관 tvN 드라마 '환혼'

완전한 가상 국가인 '대호국' 배경
동북·문화 공정…역사 논란 차단
中 전유물 소림·무당파 등장 않고
홍정은·홍미란 작가 유쾌한 대본
혼 바꾸는 판타지로 스토리 설정

우리에게도 '무협'이라는 장르는 익숙하다. 하지만 영상물로서 무협 판타지를 다루는 작품들은 대부분 중국 콘텐츠에서 많이 시도됐던 게 사실이다. tvN 토일드라마 '환혼'이 과감하게 펼쳐놓은 무협 판타지의 세계가 남다른 의미와 가치로 보이는 건 그래서다.

◆홍자매가 가져온 신무협의 세계

우리에게 과거의 어떤 시공간을 배경으로 다루는 드라마는 주로 '사극'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즉 진짜 역사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담은 삶의 공간이 제시되고, 그 위에서 펼쳐지는 어떤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기대하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tvN 토일드라마 '환혼'은 작품의 시공간을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호국'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운명이 뒤틀린 주인공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환혼'은 대놓고 이 작품이 사극이 아닌 '무협 판타지'라는 걸 분명히 해놓고 시작한다.

이렇게 한 건, 워낙 최근에 '동북 공정'이니 '문화 공정' 같은 역사 왜곡 논란들이 드라마 한 편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례들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즉 완전한 가상이고 상상의 산물이라는 걸 전제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의 빌미 자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방어적인 선택만이 아닌, 보다 공격적인 의지의 표명도 들어 있다. 그것은 주로 중국 콘텐츠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곤 했던 무협 판타지를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다.

사실 무협소설의 역사가 우리도 결코 짧지 않고,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을 통해 이른바 '신무협'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도 무협 장르는 그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드라마 분야에서 무협 판타지가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건, 제작비, CG기술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어딘가 이 장르에 '중국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정서적 거리감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중국의 무협소설보다 우리의 무협소설이 훨씬 재미있다는 건 단지 '국뽕'의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의 현실적인 배경 위에서 펼쳐지는 무협소설들은 바로 그렇게 때문에 중국보다 우리의 상상력을 더 무한하게 자극하는 면이 있다. 현실을 모르고 가본 적이 없어 하나의 상상의 세계로서 마음껏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최근 웹툰이나 웹소설의 '신무협' 트렌드는 이러한 국적성 자체가 사라진 세계의 이야기가 적지 않다. 이들은 소림파, 무당파 등이 등장하는 무협소설과 달리 몸을 바꾸거나 인생을 리셋하거나 시간을 되돌리는 판타지 설정 같은 것들이 더해진 특징을 갖고 있다. '환혼'은 바로 그런 신무협의 세계를 드라마로 가져왔다.



물론 홍정은·홍미란 작가는 이미 이전부터 '쾌도 홍길동'(2008)에서부터 '화유기'(2017)에 이르는 액션 판타지를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작품 '환혼'은 훨씬 더 과감하고 본격화된 무협 판타지를 내세우고 있다. 어찌 보면 많은 중국의 무협 판타지들 속에서 한국형 무협 판타지의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과감함이 엿보인다.

◆혼을 바꾸는 설정, 그래서 더 신박한 스토리

많은 판타지물들이 그렇지만 '환혼' 역시 '혼을 바꾼다'는 하나의 판타지 설정이 다채로운 스토리의 재미를 만들어낸다. 일단 주인공 장욱(이재욱)이 가진 출생의 비밀이 바로 이 설정에서 비롯된다. 환혼술을 알게 된 장강(주상욱)에게 병든 선왕 고성(박병은)이 자신과 7일간만 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환혼술로 장강의 몸에 들어간 왕이 장강의 아내인 도화와 동침해 장욱이 태어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장강은 태어난 아들 장욱의 기문을 막아 술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데 기문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욱에게 나타난 희망이 바로 무덕이(정소민)다. 무덕이는 실제로는 물 한 방울 튕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초절정 살수 '낙수'(고윤정)가 부상을 입은 후 환혼한 인물이다. 낙수와는 정반대로 기력 하나 없는 무덕이는 어쩌다 장욱의 몸종으로 들어가지만, 장욱은 그가 낙수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를 자신의 막힌 기문을 뚫어줄 사부로 삼는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복합적으로 뒤얽힌다. 겉으로 무덕은 장욱의 몸종으로 이들은 주종관계를 이루지만, 실제로는 장욱이 무덕의 제자가 되는 사제관계가 생겨난다. 무협 판타지지만 홍자매 특유의 로맨틱 코미디가 가미된 작품은 그래서 이 관계의 비틀어짐에서 만들어지는 웃음과 그러면서 점점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달달함까지 더해진다.

물론 무협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성장스토리'는 이러한 관계의 재미라는 구슬들을 하나로 꿰는 실이다. 무덕이는 기문이 막혀버린 장욱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그 방식은 그들이 함께 벼랑 끝에 서는 것이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함으로써 조금씩 어떤 한 계를 넘어 성장해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을 떠올리게도 만든다.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진 청춘들이지만 기성세대들에 의해 꼬인 현실 속에서 그 꿈과 능력을 제대로 펼쳐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설정이 그렇다. 물론 이런 한계를 넘어 한 단계씩 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는 RPG 같은 게임에 익숙한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다.

◆보다 깊은 질문들까지 던질 수 있을까

이러한 다양한 장점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들이 효력을 나타내면서 '환혼'은 최고 시청률 7.0%(닐슨 코리아)를 넘겼고 높은 화제성도 기록했다. 파트1, 파트2로 나뉜 작품으로 파트1이 20부로 편성되었고 이미 촬영을 마쳤으며, 최근 파트2 촬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보기보다 '환혼'이 대작이라는 의미다.

톡톡 튀는 대사와 흥미진진한 설정이 만들어내는 신박한 관계의 재미가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지만, '환혼'은 시작부터 여주인공 교체로 말이 많았던 작품이다. 본래 박혜은이 캐스팅되었지만 부담감을 이유로 하차했고, 대신 정소민이 그 역할을 맡았다. 다행스러운 건 정소민이 몸종과 사부 나아가 연인의 면면을 오가는 결코 쉽지 않은 연기를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시즌2 촬영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여주인공 교체 이슈가 떠올랐다. 시즌2에는 정소민이 아닌 본래 낙수 역할을 했던 고윤정이 주인공으로 나선다는 소식이다. 아마도 이건 '환혼'이라는 이 드라마의 설정으로 인해 낙수가 제 몸을 찾아가거나 회복하는 새로운 스토리로 인해 나온 이야기일 듯싶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 속에는 '환혼'이라는 혼이 바뀌는 설정이 뒤로 갈수록 관계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즉 무덕이만 봐도 그 몸은 진요원을 이끄는 진호경(박은혜)이 잃어버린 첫째 딸로 추정되고, 그 몸에 혼으로 들어간 낙수는 진무(조재윤)에게 속아 살수로 키워진 인물이다. 이렇게 인물의 정체가 '환혼'이라는 설정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고, 자칫 '출생의 비밀' 같은 '정체의 비밀' 코드 활용에 빠져들 수 있다. 정작 이렇게 혼을 바꿔 삶을 연장하거나 어떤 욕망을 취하려는 이들의 파국이 담아내려는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 요컨대 마치 옷을 바꿔 입듯 혼을 바꾸는 잔재미(?)에 빠지다보면 보다 깊은 드라마의 질문들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진짜 한국형 무협 판타지가 중국의 그것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려면 이러한 판타지 설정의 함의하고 은유하는 묵직한 메시지까지를 이 발랄한 드라마가 담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르적 묘미를 충분히 즐기면서도, 그 여운이 오래 갈 수 있는 작품이 되길 기대한다.

대중문화평론가

법인부동산

달 서 구

KT부동산중개㈜(허은,달서588-0097/27290-2018-00149)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장 임대, 매매
최다물건보유, 전화주세요 588-0097

★성서신축공장★
매매 대1,700㎡, 건1,190㎡ 고9M, 동력100KW
전화주세요! 010-9973-0097

★성서 공장 매매
대4958㎡, 건3398㎡, 고6M, 당450만
대1650㎡, 건1150㎡, 고6M, 당500만
010-9973-0097

★하빈 토지 매매
자연녹지지역, 1282㎡, 도로접
개발행위가능, 평당160만
010-9973-0097

★성서 공장 매매
대4,793㎡, 건3,636㎡, 크10t 3대
고9M, 동력300kw, 당510만
010-9973-0097

★창녕대합면토지 매매 대15,720㎡(4,755) 당35만, 공장허가필
(공장건축도가능) 010-9973-0097

성서기계공장급매
당510 만, 대1501, 건1006, 전300k, 호50t, 25t, 층고 16m, 8m, 도35m접 010-7542-8733

일반부동산

수 성 구

▣유명공인(박성현,수성)27260-2016-00126
월 1억2천5백만출, 200억(보10억 대출 90억 안고) 달구벌대로 초 지하철역세권 병원/명품브랜드 프랜차이즈 최고상권, 교통량, 대규모APT 상권, 초특급 빌딩 010-3701-0772

월5500만出 총180억 (대출80%可)
수성구 통상가, 고급Ⓐ밀집지역, 상업지역, 근린상업시설, 프랜차이즈핵심요지, 지하철, 광고효과 010-3701-0772

월1280만出 총48억 (대출80%可)
수성구 유명커피점, 대지340㎡
건물6층, 대단지APT 유동인구
상권좋고 010-3701-0772

▣리더스트럼프(노유진,수성)27260-2017-00196
※나대지 임대 수성구
대1670㎡, 코너, 현재 나대지
권장업종 전시장, 마트, 카페, 대형
식당적지 선착순 053)768-9000

월250出, 3억 대212㎡ 건67㎡
시장상가 점포5칸, 최요지, 현시세보다 반값이네요. 보1000+융자2억 안고 극비매 053)768-9000

▣동진부동산(권영철,수성)가-16-3703
매110억 보3.5억 융60억
월3,200만出 달구벌대로 코너
대지넓음 010-3509-4725

매15억8천 보7500만 융10억
5억5백인수, 月315만出
달구벌대로, 4층건물
주변 개발호재多 010-3509-4725

매20억 보7,500만, 융12억 7.25억인수
월500만出 대단지 코너
병원건물 010-3509-4725

동남부동산(沈宗燮,수성761-7501)가-16-1501
대로접 코너 빌딩
대576㎡, 건3,890㎡, 상업지역
몽땅80억 보10억, 月2,700 010-2714-1155

수성구 역세권 4층 상가
대162㎡, 건540㎡, 역세권
보1억, 月460出, 공실無
몽땅15억5천 010-2714-1155

월1500 병원약국, 역출구, 대로접 대445㎡, 대단지앞, 매46억
월900 매29.5억, 多대단지Ⓐ중심 대355㎡, 체인점, 학원, 신축
공실無, E/V, 주차장 010-6630-8648

월550 대로코너, 대단지Ⓐ앞상가 학원건물, 공실無, 매23억
월700 수성구, ⒶⓅⓉ대단지입구 유명체인점, 공실無, E/V
대85″, 매23.5억 010-6630-8648

월380出수성구상동 신축 상가주택, 종상향지역 대234㎡, 인수3억3천 053)762-6688

월350出, 수성구 상가 주택
신축, 대185㎡, 신축역세권, 2차선접
매14억5천 인수2억2천 053)762-6688

월305出 남구상가 주택
영대병원역세권, 상업지역, 공실없음
매12억2천 인수2억7천 053)762-6688

황금부경부동산(정자혜,수성)27260-2021-00122
스타벅스+병원
대466㎡, 건903㎡, 코너, 月905만
20억 최고의 상권 053)762-6100

스타벅스DT 급매 대1100
월2100 건560㎡, 코너 상업지역, 급처분
30억인수 010-5683-6100

달 성 군

▣다산들공인(박영수,다산)47830-2020-00005
공장매매 대366, 건120 전70k, 당130만 /대510, 건70, 전50k, 당52만
땅 계획관리, 답1850, 대형차입 급매, 당16만 054)955-4949

▣한국공인중개사(엄진섭,달성군)가18-321
달성1,2차/국가산단/테폴 공장매매 / 임대 공장전문
경력20년 010-4504-6532

▣허브시티(김잔삼,옥포)27710-2021-00028
재건축 투자 수성구지산동, 대566㎡ 연451㎡, 2종일반주거지역 지하1층, 상가, 2.3층:원룸, 투룸, 4층주인세대, 올리모델링
태양광, 매매32억 010-3503-1588

북 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북구)가-15-2290
최신축 초고수익무인카호텔매매
대6,416㎡, 건3,491㎡
최신력셔리인테리어, 특실럭셔리명품 1실1주차, 29실, 매출8천이상, 인수12억
(융有)순수익률40% 010-7437-5535

♥법인·일반부동산 문의♥
☎ 053) 656-4448
FAX 053) 656-1118
대구은행 065-13-147595 (주)매일신문사

달 서 구

▣LG부동산(이지영,달서)27290-2020-00187
※원룸 초급매
대지210㎡, 도6×6코너, 룸7칸
주인세대 1칸, 달서구 역세권
몽땅5억9천 053)643-8988

동 구

▣금상부동산(홍세호,동구)27140-2018-00149
모텔 동촌유원지 최고위치 2,376㎡(719)
1800만원/3.3㎡ 053)984-3450

토지 대로접 코너 두산오거리 옆 3,488㎡ (1055)
3200만원/3.3㎡ 053)984-3450

금탑부동산(박정자,동구)27140-2016-00053
공장창고신축급매
동대구IC, 팔공IC 10분, 건50~200″
층고8M, 면적다양, 상담환영
053)964-4849

특급 농지 급매
불로동 아파트 옆, 도8×4코너
주변시세 250만, 매매가210만
644㎡(195) 053)964-4849

경 산 시

물류 창고 안심혁신도시 대지2000″
공장 창고, 대지500″, 건물120″ 매매, 당140만, 신축
010-9468-5022/ 010-3502-0322

경산 아파트단지 상가 옥산지구 중산동, 3만세대 중심 상가, 지하1층, 94평
매매임대, 주인직접 010-2631-4333

고 령 군

▣양지공인(권영희,다산)가-4244-000049
★다산 준주거 공장
급매, 대674, 건324, 고12.5M(10×8도접2002년준공, 입주6개월여유, 물류
창고추천, 금액협의 010-2878-8945

현대공인중개사(조경식,고령)47830-2020-00004
다산면 공장부지
16,530㎡(5천평), 도로8m
건폐율20%, 토목완료
평당60만 054)956-9080

성산면급급매공장
대520, 건150, 호이스트2.8t
민원 없음, 고9.8m
매5억7천 054)956-9080

합 천 군

해인사IC 10분거리, 물맑고 공기맑고전망좋은
남향전원주택지, 돌담, 경계석, 전기
물, 진입로포장, 170~500″, 면적다양
당30만 010-7379-9900

영 양 군

야영지·식당·농원 수비면 신원리24번지 약2000 야영지및식당 겸 농원
010-3507-6366, 010-7104-9405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 대법원 등기, 분화제청 허가
● 구궁·태극성명협회 중앙회장
● 이름덕에 산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작명, 개명
●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특수비법으로 개명하여 줌(상표 특허출원)
●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
● "독도 천기" 작사 손기복, 동동동대구역 작사
대구 수성구 상동 152-60 금락사
손기복 시인 053-767-1440 010-3516-6730

제사를 모셔 드립니다
"제사는 조상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주신 은혜의 보답이며 효의 근본입니다."
신행상담 / 49제 / 천도제 / 구병시식
대구앞산 성불사 : 053-626-7969



28일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한화이글스의 경기. 1회초 1루주자 한화 하주석이 2루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당하고 있다. 삼성라이온즈 제공

위기의 삼성 덮친 '줄부상 악몽'

이재현 손가락 다쳐 1군 말소
오재일 어깨 통증 경기 중 교체
한화전 연장 끝 3대 3 무승부

삼성라이온즈가 또 선수 줄부상 우려에 울상짓고 있다. 선발 백정현이 정강이에 타구를 맞고 한차례 로테이션을 쉬어가는 데 이어 루키 이재현도 손가락 부상으로 전력 이탈했다.

최근 4번 타자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오재일까지 스윙 도중 불편함을 느껴 경기 중간 빠지는 등 좋지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28일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주중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허삼영 삼성 감독은 "이재현이 오늘 1군에서 말소됐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상이다. 타구를 잡다가 부상을 당했다"며 "대신 김호재를 급히 전북 익산에서 불러들였다. 내야진은 오선진과 김지찬 등이 있어 상황을 보며 꾸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화전에서 이재현은 6회초 최재훈의 땅볼 타구를 잡기 위해 몸을 날렸고 포구에는 성공했지만 오른손이 그라운드에 쓸리면서 엄지손가락 쪽에 충격이 가해졌다.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며 아웃처리 시킨 이후 7회초 수비에서 김지찬과 교체되면서 빠졌다.

삼성에 따르면 이재현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SM영상의학과에서 MRI 및 CT 검사를 진행했다. 내측 측척측부인대 부분 손상과 외측 중수지관절 골절 소견이 나왔다. 정확한 복귀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허리(장요근) 부상으로 5월 30일 1군에서 빠졌다가 지난 3일 돌아온 이재현은 복귀 후 타율 0.245, 1홈런 4타점, OPS 0.595를 기록하며 유격수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팀으로서도 날벼락을 맞았다.

28일 한화전 경기 도중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오재일도 경기 중간 통증을 느끼고 빠졌다.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뒤였다. 이날 2회말 첫 타석에서 6구 승부 끝에 삼진으로 돌아섰고 이후 4회말에는 포수 파울플라이 처리됐다. 5회초 수비에서 김상수와 교체됐다.

구단 측은 "오재일이 스윙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해 선수보호차원에서 교체했다. 병원 검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재일이 빠지면서 3루를 보던 이원석이 1루로 이동, 유격수 오선진이 3루로 향했고 유격수 자리에 김상수가 들어가는 등 내야진 조정이 있었다.

3대2 9회말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에서 2사 주자 3루 상황에 삼성 김현준이 1타점 적시타를 쳐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연장 승부에 돌입한 뒤, 12회말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양 팀 모두 추가 득점 없이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올시즌 삼성의 첫 무승부경기다.

한편, 3년만에 정규리그 경기가 열린 포항야구장에 3일간 모두 1만8천891명의 관중이 찾아와 경기를 즐겼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프로농구 데이원 내달 25일 창단

고양 오리온 인수, 올해 리그 참가
"팀 이름 후원 기업과 의견 조율 중
팬들과 소통, 친숙한 구단 만들 것"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데이원 창단 기자간담회에서 허재 스포츠 총괄 대표이사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기 감독. 연합뉴스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을 인수, 2022-2023시즌부터 리그에 참가하는 데이원스포츠가 8월 25일 창단식을 개최한다.

데이원스포츠 박노하 경영 부문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데이원스포츠 프로농구단 창단 기자간담회에서 "8월 25일 고양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개최한다"며 "팀 이름은 네이밍스폰서 후원 기업과 최종 의견 조율을 거쳐 창단식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노하 대표 외에 '농구 대통령' 허재 데이원스포츠 경기부문 대표이사와 김승기 초대 감독, 주장 김강선과 전성현, 이정현 등이 참석했다.

데이원스포츠는 25일 경기도 고양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었고, 스포츠 브랜드 낫소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 시즌 참가에 대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프로농구 최초로 네이밍 스폰서를 도입해 기존 구단과는 차별화된 운영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하 대표는 "네이밍 스폰서 기업과 1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다"며 "계약은 마쳤고, 다만 해당 기업의 어떤 브랜드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서 8월 25일 창단식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모기업으로 하는 데이원자산운용의 자회사인 데이원스포츠에 대해서는 프로 구단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아직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허재 대표는 운영 자금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요즘 자기 재산을 공개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냐"며 "오늘 자리가 잘못하면 여기 죄짓고 와서 앉아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구단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알게 되실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승기 감독은 "3년 안에 챔피언결정전에 오르겠다"며 "올해는 6강을 목표로 삼고, 선수들 성장에 초점을 맞춰 3년 후 우승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노하 대표는 "팬들과 소통을 통해 팬들과 친숙하고, 또 팬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구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인 허재 대표는 "농구계에 다시 돌아와 기분이 좋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경기장을 찾아 훌륭한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는 28, 29일 광주에서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를 진행한다. 대구시체육회 제공

빛고을 광주서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 대회'

대구시 선수단 4개 종목 110명
양도시 체육 발전·화합 힘 모아

영호남을 대표하는 대구와 광주가 스포츠를 통해 달빛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대구와 광주는 올해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를 광주에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 대구시 선수단은 4개 종목 11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교류종목 간 친선과 우정을 목적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교류종목은 지난해에 개최됐던 족구, 탁구, 펜싱 종목에 테니스를 추가해 친선경기를 할 예정이다. 족구, 탁구 종목은 동호인 위주, 펜싱과 테니스는 동호인과 전문선수로 구분해 경기를 치른다.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는 지난 2013년 대구·광주 양 도시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힘을 합쳐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뜻으로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격년제로 상호 초청해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구에서 개최했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은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대구·광주 양 도시의 체육발전은 물론 화합과 상생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굳건한 달빛동맹으로 힘을 모아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벤투號 코스타리카·아프리카팀과 '마지막 스파링'

9월 A매치 기간 국내서 평가전
WC 본선 앞두고 실전 모의고사
일본전 준비 코스타리카 긍정적
아프리카 팀들도 한국과 접촉 중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한 벤투호의 마지막 '스파링 파트너' 후보군이 북중미의 코스타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팀으로 좁혀지고 있다.

28일 축구계에 따르면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을 마친 벤투호의 다음 평가전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정한 9월 A매치 기간에 치러진다.

9월 19일부터 27일까지인 A매치 기간에는 2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9월 이후로는 별도로 A매치 기간 없이 곧바로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된다.

벤투호가 본선 개막 직전 카타르 현지에서 평가전을 치를 수도 있지만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번에 치를 2경기가 벤투호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가 진행돼 유럽팀을 한국으로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 한국의 스파링 파트너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다.

코스타리카는 월드컵에서 일본, 독일, 스페인과 함께 '죽음의 조'인 E조에 속했다. 그중 비교적 만만한 일본을 '1승 제물'로 보는 코스타리카는 같은 동아시아 팀인 한국을 최적의 연습 상대로 보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올랐고, 이번에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한 코스타리카는 모의고사 상대로 부족함이 없다.

대한축구협회와 코스타리카축구협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평가전에서 벤투호가 상대할 다른 한 팀은 아프리카 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이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H조에 속한 가운데, 그중 가장 '해 볼 만한 팀'으로 꼽히는 가나에 대비한 평가전이 될 전망이다.

당초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일정 탓에 아프리카팀을 섭외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당초 내년 6월 개최 예정이던 네이션스컵이 개최지인 코트디부아르 사정으로 2024년 1월로 늦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아직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9월 A매치 기간 열릴 예정이던 네이션스컵 예선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몇몇 아프리카 팀들이 한국과 접촉 중이다.

이달 초 카타르에서 월드컵 본선 출전국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 등에 관해 FIFA가 설명하는 워크숍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일부 아프리카 나라 축구협회가 평가전을 두고 교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지만 시즌 8호 홈런
탬파베이 4연패 탈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이 시즌 8호 홈런을 때려냈다. 최지만의 선제 홈런에 힘입어 탬파베이는 4연패의 수렁에서 탈출했다.

최지만은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던 야즈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 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1홈런) 1볼넷 2타점을 기록했다.

최지만은 1회 첫 타석에서 선제 2점 홈런을 쳤다. 1회 2사 1루에서 볼티모어 선발 타일러 웰스의 초구 바깥쪽 직구를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지난 4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 이후 24일, 15경기 만에 터진 홈런이었다.

탬파베이는 4대4로 맞선 연장 10회 란디 아로사레나의 2타점 적시 2루타로 볼티모어를 6대4로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났다. 김우정 기자

경북공고 레슬링부 대통령기 대회 정상 올라

金 3·銀 2·銅 2 획득 '최고 기량'

경북공업고등학교가 제4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고등부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지난 22일부터 강원도 양구에서 5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경북공고 레슬링부는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고등부 정상에 올랐다.

오는 30일부터 2주간 평창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후보 선수 합숙훈련에 참가할 예정인 3학년 김주완은 "금메달은 고된 훈련과 인내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기량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비지땀을 쏟을 각오다"고 소감을 밝혔다.

레슬링을 교기로 육성하는 경북공고는 매 대회를 치를 때마다 메달을 휩쓸며 '레슬링 명가'로서의 자존심을 높이고 있다.

박근호 교장은 "우수한 실적은 지도자와 학생 간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와 무더위 속 고강도 훈련을 이겨낸 결과이다. 앞으로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생 복지, 진로 개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유도 선수 출신의 새내기 웹툰 편집자 성장기



SBS '오늘의 웹툰' 오후 10시

29일 오후 10시 SBS TV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이 첫 방송된다.

이 드라마는 웹툰 업계의 생생한 리얼리티로 웹툰 편집자를 중심으로 웹툰 작가, 문하생, 지망생 등 웹툰 업계의 치열한 매일의 일상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웹툰 업계의 다이나믹 오피스 라이프에 발을 들인 유도 선수 출신인 새내기 웹툰 편집자 온마음(김세정 분)의 성장기이다.

온마음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좌절을 겪고 15년 가까이 품어온 올림픽 메달의 꿈을 접는다. 마음은 그 길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세상에 뛰어든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유명 IT 기업인 네온에 입사하지만 다른 합격자들과 달리 1년 계약직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게다가 웹툰 편집부 또한 1년 후 제대로 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부서의 존폐가 위태롭다.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희망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최선을 다해 자신과 우리 팀이 쭉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이신혜 기자 tvbox@imaeil.com

cpbc FM 93.1 MHz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신우신 낮 12시 15분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954년 7월 29일
톨킨의 '반지 원정대' 출간



영국의 언어학 교수이자 작가인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3부작 중 첫째 권인 '반지 원정대'가 출간됐다.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읽어 주려 쓴 '호빗'의 속편으로 호빗족 프로도가 마법사 간달프의 인도 아래 요정과 난쟁이와 인간의 연합군인 반지 원정대를 이끌어 절대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나니아 연대기'와 '어스시 시리즈'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힌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 KBS 053)757-7321 • MBC 053)740-9500
• TBC 053)760-2000 • EBS1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0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5:00 푸른백세 어영차 바다야(재)	5:00 테마스페셜(재)	5:00 왕초보 영어 / 30 클래스 e (2)
10 행복충청전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1부 / 25 모닝와이드 2부	50 한국기행(재)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7:10 TBC 굿모닝 뉴스	6:10 세계테마기행 스페셜(재)
7:50 인간극장	7:00 해 볼만한 아침 M&W	50 전국시대	40 모닝와이드 3부	7:00 엄마 까투리(종합)
8:25 아침마당 대구	9:00 KBS 아침 뉴스타임	8:45 트립유드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30 뽀로로 동화나라 / 45 로보카 폴리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0 일일연속극	50 일일드라마	50 좋은 아침	8:00 딩동댕 유치원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으라차차 내 인생〉(재)	〈비밀의 집〉(재)	9:55 SBS 10 뉴스	20 블루이 / 50 마샤와 곰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인간극장 스페셜	9:30 930 MBC 뉴스	10:15 TBC 뉴스	9:00 동그리섬의 버네사
10 열린채널	40 지구촌 뉴스	45 기분 좋은 날	30 브런치 톡	15 토닥토닥 마음아 / 40 부모 클래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1:00 주말드라마	10:45 탐나는 TV	11:30 고향이 보인다	10:30 한국기행(재)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현재는 아름다워〉(재)	11:45 뚝딱구조대 2	12:00 SBS 12뉴스	50 최고의 요리비결
		12:00 12 MBC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NEWS	11:20 세계테마기행(재)
		20 금토드라마〈닥터로이어〉(재)	50 금토드라마〈왜 오수재인가〉(재)	12:00 EBS 뉴스 12
				10 EBS 초대석
1:00 올웨이즈 7000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2:00 뉴스브리핑	1:00 이것이 야생이다3(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0 KBS 뉴스타임	50 2시 뉴스 외전	4:00 싱싱 고향별곡(재)	50 배움이 꽃피는 나무
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캐치! 티니핑(재)	3:20 꾸러기 식사교실	5:00 SBS 오뉴스	2:20 야생의 작은 거인
10 세상다반사(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기분 좋은 날(재)	30 TBC대경뉴스광장	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
3:00 라이브 오늘 스페셜	4:00 생생정보 스페셜	4:55 5 MBC 뉴스	50 굿데이 스페셜	부모성적표 스페셜
4:00 사사건건	5:10 뮤직뱅크	5:10 모두의 TV 스페셜		3:35 세상을 비집고(재)
5: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5 영어 스토리 타임
30 라이브 오늘				15 페파 피그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6:00 6시 내고향	6:30 2TV 생생정보	6:05 테마기행 길	6:50 생방송 투데이	5:00 EBS 뉴스
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7	7:50 일일드라마	7:05 일일드라마	7:50 SBS 8뉴스	2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40 올웨이즈 7000(재)	〈황금가면〉	〈비밀의 집〉	8:30 TBC 8뉴스	30 로보카 폴리(재)
8:30 일일연속극	8:30 신상출시 편스토랑	40 MBC 뉴스데스크		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으라차차 내 인생〉		8:5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6: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00 슈퍼맨이 돌아왔다	9:50 금토드라마	9:00 궁금한 이야기 Y	7:00 타타와 쿠마(재)
10:00 시사 직격	11:30 불후의 명곡(재)	〈빅마우스〉	10:00 금토드라마	20 자이언트 펭TV(재)
50 다큐 온	1:00 영상앨범 산(재)	11:10 나 혼자 산다	〈오늘의 웹툰〉	35 자이언트 펭TV
11: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0 금토드라마	11:20 문명 특급 영화인 대잔치	50 건축탐구-집(재)
12:10 독립영화관		〈빅마우스〉(재)	12:30 굿데이 스페셜	8:40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빛나는 순간〉			1:30 화첩기행(재)	9:30 한국기행 / 50 명의
1:45 이슈 픽 쌤과 함께(재)				10: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45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3:45 아침마당(재)				55 EBS 스페이스 공감
				12:45 다큐시네마〈학교 가는 길〉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 TV
10:00 청춘야구단:아직은 낫아웃	11:00 베이스볼 투나잇	11:10 2022 KLPGA 롯데 오픈 FR	11:50 2018 러시아 월드컵 골모음	10:00 제10회 하찬석국수배 역대 영재 왕중왕전
13:00 I♥베이스볼 미니	13:00 2021 영월동강배 족구 최강전	14:30 2022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포틀랜드 FR	13:50 2022 SBS 프로볼링 봉화 은어축제컵	13:00 제26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14:30 KBO리그 LG:SSG	16:00 전설끼리 홈인원	17:00 로테이션 게임	16:00 역대 월드컵 대한민국 골모음	17:00 제5회 오카게배 국제신예바둑대항전 결승 한국:중국
18:20 KBO리그 KT:LG	18:30 KBO리그 +키움 : NC	19:00 토탈골프 프로vs아마 챔피언십	18:20 2022 KBO리그 롯데:삼성	19:00 2022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22:00 I♥베이스볼	22:00 베이스볼 투나잇	21:00 SBS골프 아카데미 허석호, 박진이	22:00 베이스볼S	23:00 제15기 YES24배 고교동문전
24:00 I♥베이스볼	23:00 베이스볼 투나잇	23:10 레슨 팩토리 5 쇼츠	23:00 베이스볼S	24:30 제5기 용성전 결승 3번기 3국 신진서:강동윤

영화·경제

OCN	스크린	씨네프	SBS Biz	한국경제 TV
11:20 쥬라기월드:폴른킹덤	11:10 CSI:MIAMI8	10:10 크림	11:25 경제와이드 백프리핑 시시각각	10:30 주식경제
13:50 걸캅스	13:30 초능력자	12:10 메리셀리:프랑켄슈타인의 탄생	13:00 이슈&직설	13:00 나의 투자
16:00 파이프라인	15:45 캐시트럭	14:30 증발	15:00 경제현장 오늘	16:00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18:20 분노의 질주:홉스&쇼	18:50 에너미앳더게이트	16:50 바람의 파이터	17:55 뉴스 프리즘	18:00 뉴스플러스
21:00 명량	20:35 빅뱅이론2	19:15 테이커스	21:00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20:00 경제전쟁 꿈 시즌 2
23:50 덱스터:뉴블러드	22:50 인사이더	21:25 굿플레이스4	23: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30 한경 글로벌마켓

드라마·오락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12:00 연모	10:30 라디오스타	11:30 나는 솔로	10:10 백피커	11:50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2
14:40 연모	12:10 도포자락 휘날리며	14:4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10 아다마스	14:30 빈집살래:buy & live
16:00 연모	16:30 안싸우면 다행이야	17:40 미운 우리 새끼	15:20 벌거벗은 세계사	17:10 지구에 무슨 129? 스페셜
18:40 비밀남녀	19:50 나 혼자 산다	19:4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7:30 백패커	19:10 김구라의 라떼9
21:30 차트를 달리는 남자	22:50 러브마피아	21:10 나는 솔로	20:50 뽕뽕 지구오락실	21:10 노는 언니
23:50 비밀남녀	24:00 빅마우스	22:4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4:10 O'PENing	23:00 저 세상 중고차 GEAR GODS

종편·보도

MBN	TV조선	JTBC	채널A	YTN
11:00 속풀이쇼 동치미	11:20 마녀는 살아있다	11:40 소시탐탐	10: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페셜	11:50 뉴스N이슈
12:30 나는 자연인이다	13:00 보도본두 핫라인	13:20 세계 다크투어	12:00 뉴스A LIVE	13:30 더뉴스
16:30 뉴스파이터	16:00 국가가 부른다 베스트	15:10 썰전 라이브	15:20 K-뮤직 배틀 오디션 청춘스타	15:50 뉴스Q
19:00 MBN 뉴스7	19:00 건강한 참견	18:10 사건반장	17:20 뉴스 TOP10	17:50 이브닝뉴스
20:10 천기누설	21:00 TV CHOSUN 뉴스9	21:00 인더숲:우정여행 편	21:30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21:40 뉴스나이트
23:50 특종세상	22:00 미스터트롯 영웅들의 탄생	22:50 플라이 투 더 댄스	22:50 푸어라이크	23:50 자정뉴스

어린이·다큐

투니버스	JEI재능TV	챔프	YTN 사이언스	내셔널지오그래픽
10:00 흔한남매와 안 흔한 친구들	11:00 슈퍼다이노	10:00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10:30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	10:45 Year of The Storm
12:00 조아서 구독중	13:00 인싸가족	14:00 파워레인저 애니멀포스	13:00 톡으로 나누는 과학 이야기, 과톡	13:30 Breakthrough
16:00 매지컬 파티	15:00 가면라이더 이그제이드	15:00 디지몬 어드벤처	15:00 야생의 강자	17:10 Air Crash Investigation
19:30 다시 만난 세계 쩌미문	17:00 메카드볼 NEW에피소드	18:30 극장판 토리코	18:00 추적 몬스터	19:00 Disasters Engineered 2
21:00 명탐정 코난 극장판 9	21:00 쉐어TV 버라이어티	22:00 소년탐정 김전일Original 2	21:00 지구멸망 최후의 날	21:00 Breakthrough
24:00 짱구는 못말려 X파일 2	23:00 이리지니TV	24:00 소년탐정 김전일Original 2	23:00 사이언스 투데이	23:00 Lawless Island 5

종교·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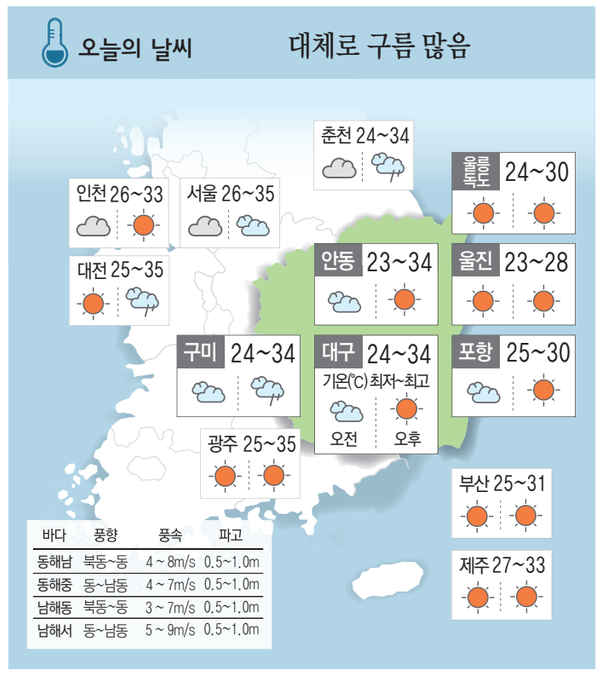
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CNN Int'l
11:00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	10:30 사시불공	11:0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00 BBC World News	12:00 LIVE EVENT
13:10 기도를 부탁해	13:00 사천 백천사 산신대재	13:00 생명의 삶	12:30 HARDtalk	14:00 CNN Newsroom
16:00 채널고정! 건강을 드립니다	15:20 증엄스님의 불교설화	16:20 칩 잉그램의 기쁨을 선택하라	15:45 World Business Report	16:00 CNN Newsroom
18:00 저녁기도와 전례	18:00 저녁예불	18:10 CGN〈북세미나〉책걸음2	18:00 BBC News	18:00 Early Start
21:00 평화를 위한 기도	21:30 천년의 기다림	21: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21:00 Impact with Yalda Hakim	21:30 World Sport
24:00 가톨릭 명화극장	23:30 증엄스님의 불교설화	23:00 맥스 루케이도의 에스더	23:30 HARDtalk	23:00 Connect the World

교육방송

EBS플러스1	EBS2
5:0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II	6:00 EBSe 생활영어(재)
5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화학 II	30 EBSe 생활영어
6:4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지구과학 II	7:00 왕초보 영어(재)
7:3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 II	8:00 Seasame street
8:2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수학 I	30 매일 10분 영어
9:1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	9:00 초등1 – 통합
10: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한국지리	30 초등1 – 수학
11:0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세계지리	10:00 초등2 – 통합
12:0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 · 신유형] 영어	30 초등2 – 수학
50 [2023 수능완성] 수학+기하	11:00 초등1 – 창의체험(2)
13:4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 · 신유형] 수학+확통	30 초등2 – 창의체험(2)
14:30 [2023 수능연계완성 4주특강 고난도 · 신유형] 수학+미적분	12:00 형사 가제트
15:2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미적분	30 오즈, 마법을 찾아서
16:1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확통	13:00 방귀대장 뿡뿡이
17:0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II	30 뭐든지 뮤직박스
5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화학 II	14:00 음악 나리의 앨리스
18:4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지구과학 II	30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9:3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 II	15:00 할 수 있다고 2
20:2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수학 I	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21:1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	16:00 스쿨랜드-과학
22:00 [수능의 7대 함정] 수학+미적분	20 엉뚱남매 요리조리쇼
50 발전[2023 수능특강] 미적분	17:20 즐거운 수학 EBS MATH
23:40 [발전][2023 수능특강] 기하	50 영어 스토리 타임
24: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과 윤리	18:00 슈퍼두퍼 잉글리시
1:30 [2023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30 오즈, 마법을 찾아서
2:30 문화유산 코리아	19:00 형사 가제트
40 한 컷의 과학 시즌2	30 하트가 빛나는 순간
	20:00 정글 플래닛 / 30 세상을 비집고
	21:00 배움이 꽃피는 나무
	3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0 가만히 10분 멍TV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출발! 대구대행진 오전 7시
每日新聞 뉴스 오후 4시

오늘의 날씨 — 대체로 구름 많음



■ 5일간 예보

지역 \ 날짜	30(토)	31(일)	8.1(월)	2(화)	3(수)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해 뜸	05:31
해 짐	19:33
달 뜸	05:30
달 짐	20:16

지역	만조	간조
포항	15:04	–
	–	–
부산	08:45	02:35
	21:10	14:46

· 일기예보 자동응답 131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 ——— 119

대학교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 1577-662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시장앞) 250-8114
  www.dsmc.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1688-0077
  www.dcmc.co.kr
- 경북대학교병원 ——— 1666-5114
  www.knuh.kr
- 영남대학교병원 ——— 1522-3114
  www.yumc.ac.kr

종합병원

- 파티마병원 ——— 1688-7770
  fatima.or.kr 동대구역 옆
- 곽병원 ——— 252-2401
  kwakh.co.kr 서성네거리
- 구병원 ——— 560-9114
  gooh.co.kr 지하철2호선 죽전역 4번출구
- 천주성삼병원 ——— 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 2호선 신매역 5번 출구
- 대구의료원 ——— 560-7575
  www.daegumc.co.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 320-2500
  www.tcmcch.co.kr 대구은행칠곡지점 건너
- 경산중앙병원 ——— 715-0119,0129
  www.gsjoongang.com
- 드림종합병원 ——— 640-8575
  www.dreamh.co.kr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출구

병 원

- 수성메트로병원 ——— 743-7777
  남부정류장네거리 지하철2호선 만촌역

요양병원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054-743-6200
  www.kjho.co.kr 동국대→영천, 고경 방향
- 상주연세실버타운 ——— 054-533-1600
  www.syst.or.kr
- 연세한방병원 ——— 054-531-9988
- 연세요양병원 ——— 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090804-중-14127호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 심야약국(저녁10시~새벽6시) 768-3679 수성구 황금2동 757-3 대구시약사회관 별관1층

■ 365 연중무휴 약국

- 〈중구〉대하약국 ——— 254-8164
- 〈중구〉한성약국 ——— 425-5575
- 〈동구〉팜프라자약국 ——— 607-2733
- 〈서구〉경명약국 ——— 355-7255
- 〈수성구〉시지광장약국 ——— 792-8297
- 〈북구〉형우당약국 ——— 358-9696
- 〈북구/칠곡〉강북약국 ——— 323-8736
- 〈달서구〉삼일약국 ——— 568-3375
- 〈달서구〉메디칼중앙약국 ——— 586-7900
- 〈달성군〉중앙약국 ——— 615-0007

■ 365 자정약국

- 〈중구〉복음약국 ——— 252-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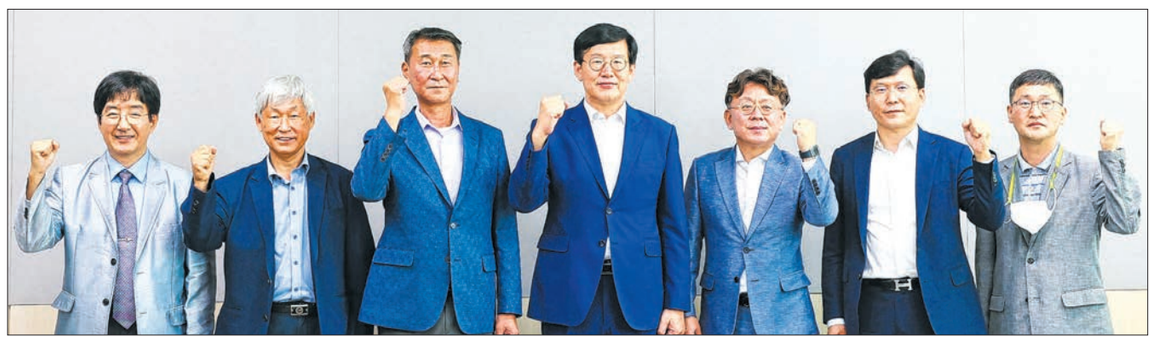
당직 변호사 (29일)송인영 (30일)한동현 (31일)한신 053)741-6338 FAX: 053)751-6006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40년 전통
작명원제 큰이름

053-241-3456 큰이름 ▼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농업·ICT 기술 융합…안동시 지속가능 농업 시동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창립총회
이상학 부시장 초대이사장 선임
오대리 90여개 과원 단지 조성
AI 기반 4개 정부사업 추가유치



(재)한국미래농업연구원 창립총회가 27일 열렸다. 농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안동시 제공

농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목표로 한 (재)한국미래농업연구원 창립총회가 27일 안동스마트팜사업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창립총회에는 발기인 대표로 선출된 김대희 안동스마트팜사업단 단장과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 백승모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화 안동대학교 교수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9명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 심의, 재산 출원 사항,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안 심의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초대 이사장으로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이, 원장으로 김대희 안동스마트팜사업단 단장이 선임됐다.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안동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대상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 미래 농업으로 육성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 동안 24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일원 90여 개의 과원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투입해 61.5ha 규모의 스마트 생산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는 병해충 예찰 서비스, 자동관수 서비스 등 다양한 모델 개발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은 현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외에도 AI 기반 병해충 예찰·예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 4개의 정부 사업을 추가로 유치했으며, 추가적인 정부 사업 수행을 통해 스마트 농업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상학 초대 이사장은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 농업 분야 과학기술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안동시를 데이터농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학·연이 모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직원분들과 함께 국내 스마트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김철식 '아너 소사이어티' 군위군 2호 회원

서울로 출향 후 2001년 귀향
매년 경로잔치 등 사랑 나눔



김철식(가운데) 전 군위군 파크골프협회장이 아너 소사이어티 군위군 2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김진열(오른쪽) 군위군수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김철식(73) 전 군위군 파크골프협회 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군위군 2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 전 회장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이 고향으로, 유년 시절인 12세 때 서울로 출향해 사업가로서 성공한 후 2001년 귀향했다.

그는 매년 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을 100만원씩 기부하는 등 지역의 각종 행사, 경로잔치, 인재 양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변의 노력, 배려,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내가 따뜻하게 지내려면 주위가 따뜻해야 하기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김 전 회장이 아너 소사이어티 군위 2호 회원 가입으로 그동안 기부를 망설이던 많은 분들에게 적잖은 선한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김 전 회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희대 기자 hdlee11@imaeil.com



대구보훈청-동신초 'UN군 참전용사 추모 음악회'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장정교)은 27일 'UN(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구동신초등학교 학생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유엔 참전용사에게 바치는 추모 음악회를 개최했다.

정부 대구합동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낸 22개국 195만 명의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기념일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보훈청과 동신초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를 통해 동신초 학생들은 직접 참전용사에게 바치는 곡들을 연주했으며, 손수 작성한 감사 편지를 낭독했다.

장정교 대구보훈청장은 "전쟁을 겪지 않은 미래 세대 학생들이 참전 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가는 감동적인 자리가 됐다"며 "학생과 시민이 주인공이 된 행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국민정책포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초청 강연회

'블록체인 기반 일자리 생태계' 주제

국민정책포럼(공동대표 김정훈 영남대 교수·정순천 전 국민의힘 수성구갑 당협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블록체인 기반 일자리 창출 생태계'란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초청 강사로 나선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태손·이재화·황순자 대구시의원, 수성구 의회 김경민 부의장, 박세롬 의원, 손인락 영남일보 아카데미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블록체인 기술을 이끄는 암호학 박사로 유명한 박 센터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앞으로 세상은 정보자산 기반의 인터넷경제에서 디지털자산 기반의 블록체인(암호화폐)경제로 바뀔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블록체인의 원천기술은 합의 알고리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떠올린다. 비트코인은 10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고 현재의 우리가 나눠야 할 담론은 합의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술동향"이라고 강조했다.

정순천 대표는 "최근 전 세계로 코로나 19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나려나 기대했던 우리 사회에 또다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어 걱정이 많다. 지난 2, 3년 코로나 시국에 우리 사회는 언택트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어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화상회의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김정훈 영남대 교수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활발한 토론과 대안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imaeil.com



계명대 동산병원 '마이트라클립 시술' 성공

심장질환 치료 시스템 우수성 입증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혈관센터 판막질환 중재시술팀(심장내과 허승호, 이철현, 윤혁준, 김인철, 이선화 교수)이 비수도권 최초로 마이트라클립(MitraClip) 시술에 성공했다.

마이트라클립 시술은 심장 내 승모판을 구성하는 두 개의 판 사이를 작은 집게로 잡아, 판막이 닫힐 때 역류하는 빈 틈을 없애 승모판막 역류를 감소시키는 시술이다.

동산병원은 지난 8일 중증 승모판 역류증과 박출률 저하 심부전이 동반된 80세 여성 환자에게 첫 마이트라클립 시술을, 이어 지난 19일에는 81세 남성 중증 승모판 역류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비수도권 최초로 시술에 성공해 매우 높은 수준의 심장질환 치료 시스템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인 사

◆안동시

〈6급 승진〉▷기획예산실 권준철 ▷건축과 김승희 ▷중구동 박필준 ▷사회복지과 안소영 ▷여성가족과 정영숙 〈6급 승진 의결〉▷종합민원실 설지순 ▷평생교육과 박수민 ▷건설과 김효재 ▷도시재생과 권오신 〈6급 전보〉▷풍산읍 권순필 ▷서후면 김성숙 ▷풍천면 이도영 ▷예안면 이혜순 ▷도산면 송수정 ▷평화동 김한숙 ▷송하동 강영자 ▷강남동 조정순 ▷기획예산실 김인원 ▷와룡면 정석순 ▷남선면 권기홍 ▷임하면 김홍한 ▷용상동 김태희 ▷태화동 김영태 ▷와룡면 엄광용 ▷남후면 권경희 ▷태화동 손순기 ▷남선면 박종필 ▷길안면 김은정 ▷임동면 권화숙 ▷보건위생과 조경란



국제라이온스협회, 매일신문 방문 봉사활동 다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오명환 총재(왼쪽 여섯 번째)와 김용찬 제1부총재, 최진열 제2부총재 등 일행은 28일 매일신문(사장 정창룡·오른쪽 다섯 번째)을 방문해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과 봉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구공동모금회, 남구 복지시설 3개소에 차량 지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는 27일 조재구 남구청장, 이충도 남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사회복지시설인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햇빛재가노인돌봄센터 등 3개소에 경승용 차량 3대를 전달했다.



대구시설공단 봉사단 저소득 어르신에 보행기 지원

대구시설공단(이사장 최길영) 사랑나눔봉사단은 27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20가구 대상 '사랑의 보행기' 지원 사업을 펼쳤다.



소아난치병협동조합 수술 지원금 2천만원

한국소아난치병사랑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경희·오른쪽 두 번째)은 27일 선천성 안면열을 앓고 있는 이준희(미카엘) 군에게 성금 2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술을 지원했다.



대구공고-동구자원봉사센터 학생봉사활동 지원 협약

대구공업고등학교(교장 송우용)는 27일 대구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명순)와 학생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빛침장, 서구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300만원 상당 기탁

한빛침장(대표 한주연)은 27일 대구 서구 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여름 이불&패드 세트 50채(300만원 상당)를 서구청에 기탁했다. 한 주연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월남전참전자회 대구지부 호국사진전·공연 실시

월남전참전자회 대구시지부(지부장 안형준)는 26일 두류공원 성당못 앞에서 월남전참전자 호국사진전시회 및 사랑해밥차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했다.



이인화의 온고지신

지방시대 제2 퇴계혁명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국정 과제로 표방되면서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이 공론화되었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 서울 쏠림-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다양한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을 추진했지만, 지방시대의 실현은 쉽지 않았다. 지방시대는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때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퇴계혁명에서 발견한다. 16세기 퇴계의 서원 운동은 지방이 앞장서서 서울로 쏠리던 국가의 자원과 인재를 지방으로 되돌려놓은 거대한 사회혁명이었다.

퇴계혁명에는 '인간으로서, 지방민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경상도 안동의 지방민 퇴계의 정체성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또 퇴계혁명에는 강남 농법이라는 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존중, 종가 문화를 통한 지방 쾌적성(어매니티)의 개선, 사제 공동체의 광역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인구의 확대, 향약 개혁을 통한 지역 내의 민주적 의사소통 등 지방시대 성공의 보편적인 공식이 적용되고 있다.

퇴계혁명은 책을 읽고 생각한 논리적 구상이 아니라 퇴계 자신이 실존적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결단한 운명적 선택이었다.

1546년 7월 퇴계의 두 번째 부인 권 씨가 죽었다. 처녀 시절 신사무옥으로 숙부 권전이 곤장 170대를 맞다가 형틀에서 죽고 부친 권질이 유배된 뒤 충격을 받아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권 씨였다. 그녀와의 16년 결혼 생활은 퇴계에게 서울로만 쏠리는 권력의 각축과 그 불합리에 대한 긴 명상의 시간이었다.

1549년 8월 퇴계의 넷째 형 이해가 죽었다. 7남매의 막내였던 퇴계에게 넷째 형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이해는 충청 관찰사였을 때 역적을 비호했다는 모함을 받아 곤장 100대를 맞고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형을 받았다. 그는 온몸에 피고름을 흘리며 끌려가다가 결국 미아리에서 쓰러져 객사했다.

서원, 교육중심을 지방 사학으로 옮겨

그해 12월 풍기군수 퇴계는 사직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귀향했다. "나의 소원은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시에서 퇴계의 당시 심경이 드러난다.

퇴계는 고향에 방 한 칸짜리 서당을 짓고 훗날 서원 운동으로 불리게 될 놀라운 혁명을 시작했다. 서원이란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그 지방 출신의 성현을 배향하는 사당을 짓고 그 옆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는 학문 공간이다.

서원 운동은 교육의 중심을 성균관과 향교 같은 관학에서 지방의 사학으로 옮겨 놓았다. 학문을 서울과 연결되려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출세의 수단(위인지학)에서 지방에 뿌리박으려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수단(위기지학)으로 바꿔 놓았다. 그 결과 서원을 중심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인구가 늘었으며 지방 경제가 번영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성공 요인이 있다.

첫째는 첨단 테크놀로지에 대한 존중이다.

성리학은 철학이지만 오늘날 대학의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분과학문(사이언스)의 철학은 아니다. 성리학은 천문학, 의학, 토목학, 건축학, 농업기술이 결합된 통합 대과학(에피스테메)의 철학이다. 퇴계의 성리학 역시 첨단 농업기술인 강남농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강남농법은 3모작 논농사를 할 수 있는 중국 복건성, 절강성 지역의 농업기술이다. 이 기술은 정교하게 퇴비를 사용하는 시비법과 '천방'이라는 보를 쌓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천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은 강남농법을 일찍 도입했지만 강우량이 부족한 자연환경 탓에 실패를 거듭했고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기술개발에 이를 수 있었다.

퇴계와 그 제자들은 강남농법을 몸소 실험하는 지방의 중소 지주들이었다. 퇴계는 1548년 상습 가뭄 피해 지역이었던 단양의 군수로 대규모 인공 저수지 복도소(復道沼)를 직접 건설한 바 있다. '도를 회복하는 저수지'라는 복도소 이름처럼 지역의 관점에서 퇴계가 생각한 도는 만백성이 먹고살 수 있는 길, 건실한 일자리 창출의 길이었다.

수평적 의사소통 지역 공동체 결집 역할

둘째는 지방 쾌적성, 어매니티의 개선이다.

어매니티란 지방에서도 서울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의료, 보육, 교육의 쾌적성을 말한다. 서원에서 길러진 성리학자들은 지방의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성리학자들은 〈향약구급방〉과 같은 의서를 판독할 수 있는 유의(유학자 의사)들이었다. 영주의 초당 이석간, 안동의 탁청정 김유, 성주의 묵재 이문건, 선산의 송당 박영 등은 현대에도 연구되는 명의들이다.

서원과 함께 나타난 종가문화는 보육과 교육을 일신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격대 보육, 효와 예절, 보양을 담당하는 안채 교육과 권학을 담당하는 사랑채 교육의 분리 등은 지방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생활문화를 창조하게 하였다.

셋째는 관계 인구의 확대이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정주 인구만이 아니다. 관광, 교육을 통한 체류 인구, 교류를 통한 관계 인구는 지역 소비력을 증진시킨다. 금난수의 〈성재일기〉가 말해 주듯이 퇴계의 서원 운동은 공부 모임인 수계회, 관광 모임인 유산회, 창작 모임인 문회, 향음주례 등 다양한 조직을 낳았다. '통문'이라는 공유 문서를 통해 전국 각지의 사제 공동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를 창출했다.

넷째는 지역 내 민주적 의사소통이다.

퇴계가 생각한 이상 정치는 철저히 지방을 위한, 지방에 의한, 지방민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였다. 퇴계는 주나라의 고대 향법을 근거로 같은 지역 사람들은 서원이나 향당 같은 지역 모임에서 귀천을 가리지 말고 나이순으로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너무 급진적인 사상이었기에 월천 조목과 후조당 김부필 같은 애제자까지 반발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역 내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관철시킨 퇴계 사상은 지역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집된 지역의 민심은 중앙에서 '사림의 공의'로 존중되었다.

퇴계혁명은 대구경북이라는 한 지역을 떠나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방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그것은 평화로운 무혈혁명인 동시에 이후 한국의 기초를 형성한 근본 혁명이었다.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국가를 창조했던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 보고 싶다.

전 이화여대 교수·소설가

그립습니다

박현식(포낙보청기 지역센터 부장·청능사) 씨의 친구 고 이희준 씨

"일찍 떠난 네가 너무 안타까워서…너를 부를 때마다 실없이 눈물이 맺힌다"

지금도 보고 싶은 친구 희준아, 나를 떠난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니? 난 네가 하늘에서 보살펴 준 덕분인지 잘 지내고 있어. 네가 생각날 때마다 더 가까이 못 지낸 게 너무 아쉽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나와 함께했더라면 더 많은 추억을 남겼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때때로 안타깝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마고우였지. 중학생 때였었나, 너와 함께 여름방학 때 성주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가서 같이 참외도 따고 경운기도 타면서 재미있게 놀았었지. 함께 방학을 같이 보낼 정도로 친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걸 보니 우리는 정말 끈끈한 인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공부도 잘했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네가 갑자기 아프다고 할 때는 무슨 일인가 싶었단다. 그저 피곤한 모습을 보이길래 공부가 많이 힘든가 했는데 갑자기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병이 너에게 닥칠 줄은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거야.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너의 꿈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착착 해 나가던 그때 그런 병이 찾아오다니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어.

진단을 받은 이후 너는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대구로 내려와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했지. 고3이 되기 전 결국 너는 나와 친한 친구들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 버렸지. 학교에서는 말렸지만 나와 친구들 몇몇은 학교 담장을 넘어 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갔었어.

너와 내가 가장 많이 추억을 쌓았을 학교 교정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보낸 게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 네가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봤대서 너의 화장한 유골을 들고 제주도로 가서 뿌렸던 것도 엊그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 나는 지금도 네 생각이 불현듯 날 때면 너를 뿌린 장소에 가서 너를 생각하며 소주 한 잔 뿌리고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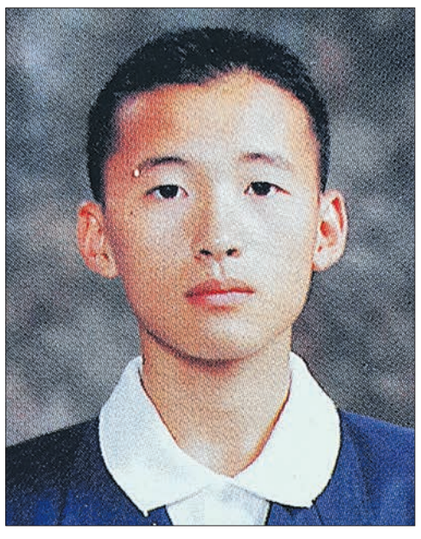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단다. 네가 지금 살아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착하고, 정의감도 있었고, 공부도 그 나름 잘했으니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 참 멋있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왜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지 하늘이 참 원망스럽기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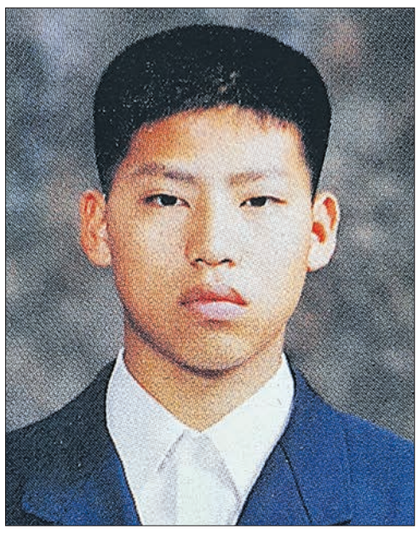
너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내 삶도 많이 달라졌어. 나 사실은 원래 직업군인이 되려 했었어. 그런데 너를 보내고 난 뒤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대학도 사회복지 관련 전공을 했어. 대학 졸업 후에는 청주노인복지관에서 4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다가, 지금은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한 보청기 회사에서 청능사로 일하면서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돕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 만약 우리들의 건강한 피가 있었다면 네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헌혈을 계속해 왔단다. 군대에 있을 때에는 전투화에다 이름 대신에 '헌혈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적어두고 내 결심을 계속 되뇌었었어. 지금도 헌혈을 할 때마다 네 생각을 해.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200회 넘게 헌혈을 했더라고. 자랑 같겠지만 헌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나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고 도움이 되는 모습에 뿌듯함도 느낀다. 그만큼 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너 덕분이다.

희준아, 너를 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저릿함이 몰려온다. 너를 하늘로 보낸 지 20년이 지났지만 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큰 어른이 된 나는 실없이 눈물이 맺히곤 한다. 너무 일찍 떠난 네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네가 살아야 할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할게. 나중에 나도 이승을 떠나게 되면 만나게 될 그곳에서 소주나 한잔 같이 하자.





박현식(왼쪽) 씨와 고 이희준 씨의 중학교 졸업 앨범 속 사진. 박현식 씨 제공

'그립습니다' 사연 이렇게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매일신문이 함께 나눕니다.

- **분량**: 200자 원고지 8매,
-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1~2장
- **문의 전화**: 053-251-1580
- **사연 신청 방법**
  http://a.imaeil.com/ev3/Thememory/longletter.html 혹은 매일신문 홈페이지 '매일신문 추모관' 배너 클릭 후 '추모관 신청서' 링크 클릭
  이메일 missyou@imaeil.com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매일신문 그립습니다' 검색 후 사연 올림

오늘의 운세 7월 29일(음력 7월1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외출을 삼가세요. 뜻밖의 깜짝 사고수가 있으니 외부 활동보다 건강관리를 하세요. ▶48년생 현실의 벽에 부딪치게 되는 날입니다. 투기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의해야 해요. ▶60년생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사소한 건 흘려버리세요. ▶72년생 갑자기 역행하면 안 됩니다. 순리에 맞게 순응하고 함께 발맞추면 문제 없어요. ▶84년생 자신도 모르게 매사가 짜증스럽게 흘러갈 수 있으니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돼요.



소

▶37년생 냉철하고 명확하게 분석하세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일들은 절대 위험하답니다. ▶49년생 익숙한 일이라도 프로 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61년생 서로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배려심을 베풀어 주세요. ▶73년생 우려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책을 마련하고 꼼꼼하게 진행해 보세요. ▶85년생 발목 잡힌 것처럼 답답하고 마음의 부담이 크니 갑작스러운 변동은 불리합니다.



범

▶38년생 마음이 그늘지고 불안감이 생기고, 하는 말마다 오해가 되니 입을 무겁게 하세요. ▶50년생 냉철하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적당한 선이 없으면 곤란한 일에 빠지게 돼요. ▶62년생 마음은 간절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되고 대인관계도 힘드니 마음을 잘 조절하세요. ▶74년생 욕심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재점검하면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날입니다. ▶86년생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의욕도 떨어지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토끼

▶39년생 얼음이 녹고 따뜻한 기운이 솟아납니다. 희망과 기쁨이 생기는 좋은 날입니다. ▶51년생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실력 발휘를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생겨요. ▶63년생 돌아가는 사태를 잘 파악하세요. 먼저 앞서서 행동하면 오히려 낭패를 봅니다. ▶75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가벼운 농담도 조심해야 오늘 하루 평탄해질 겁니다. ▶87년생 이득이 눈앞에 있으니 불편해도 함께하고 현실과 타협하세요. 고집은 안 돼요.



용

▶40년생 그동안 초지일관하고 묵묵히 추진한 일은 성과가 있지만 새로운 시작은 불리해요. ▶52년생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면서 좌불안석이 될 수 있으니 거리를 둬야 합니다. ▶64년생 겸손하고 묵묵해야 합니다. 아는 척하고 앞에 나서서 일 처리를 하면 구설이 돼요. ▶76년생 물과 불이 부딪치는 형국처럼 갑작스러운 변화 변동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아요. ▶88년생 떠난 뒤 후회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배려하고, 보살펴 주는 게 현명합니다.



뱀

▶41년생 겸손하면 득이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 해도 소신 있게 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53년생 일 관계로 만난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움직여야 얻는 것도 많아진답니다. ▶65년생 모든 일들이 점차 호전되고 성과를 올립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실수가 많습니다. ▶77년생 무리한 계획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실천하면 이득을 챙기게 돼요. ▶89년생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애정운과 금전운이 좋으니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말

▶42년생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생각의 폭을 넓히세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54년생 밝은 표정과 넉넉한 마음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매사 자신감 있게 추진하세요. ▶66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큰 소득을 만들어요. ▶78년생 의외의 성과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부지런히 한다면 보람을 느끼게 된답니다. ▶90년생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면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좋은 계기가 생길 거예요.



양

▶43년생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낮은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55년생 즉흥적인 생각보다는 계획성 있는 태도가 더욱 유리하고 운을 상승시켜 줍니다. ▶67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생각지 않은 돌발 사태가 생깁니다. ▶79년생 잠시의 어려움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성과를 올립니다. ▶91년생 아무리 바빠도 그날 할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세요.



원숭이

▶44년생 오늘은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성급하게 서두르면 실패가 따르게 됩니다. ▶56년생 크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성과가 있으니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68년생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철저한 시간 관리도 중요해요. ▶80년생 잘잘못을 따지거나 불필요한 참견은 안 돼요. 상대방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92년생 오늘은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의외의 도움을 받는 날이니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닭

▶45년생 상대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손실을 막을수 있겠습니다. ▶57년생 외부적인 변화와 동요가 심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 뒤 행동해야 유리해요. ▶69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습니다. 막혔던 일들도 풀리고 주위의 도움도 있어요. ▶81년생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이 어긋나도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93년생 평소 힘겹게 여기던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구해 보세요.



개

▶46년생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입을 무겁게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58년생 남의 의견을 듣지 않아 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 원망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70년생 오늘은 능력 이상의 일이나 무거운 책임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실속 있습니다. ▶82년생 일이 막히고 어긋난다고 예민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해결됩니다. ▶94년생 새로운 만남은 적당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근심이 생겨납니다.



돼지

▶47년생 어렵던 과정에 도와 주는 귀인이 나타나니 그동안 간절했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59년생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이니 현재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보세요. ▶71년생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보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83년생 힘든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노력이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95년생 즉흥적이고 색다른 변화보다는 그동안 하던 일에 대해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좋아요.

Once again Daegu

기 고



신 재 득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

지난 7월 4일, 핀란드 탐페레의 한 호텔에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선수단 대표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당일 개최된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World Masters Athletics)의 정기총회에서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의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처장 선출 투표와 2023년, 2024년 차기 대회 개최지 소개에 이어, 2026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 진행 순서가 남아 있었다. 2026년 대회 개최 후보지인 대구가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인들에게 소개되고 만장일치 찬성으로 대구가 2026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는 순간이었다.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는 세계 마스터즈 육상을 대표하는 대회로, 1975년 캐나다 토론토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돼 왔으며, 2004년부터는 실내 육상경기대회와 번갈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90여 개국 1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마스터즈 육상대회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회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실외 대회는 4년 만에 이번에 핀란드 탐페레에서 개최됐다.

세계 마스터즈 육상인들에게 대구는 이미 익숙한 이름이다. 지 난 2017년 대구는 세계실내마스터즈육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탐페레에서 만난 참가자들 중 2017년 대구대회를 자신에게 최고의 마스터즈대회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총회에 참석했던 한 핀란드 선수는 대구 대회에 감명을 받아 자신의 팔에 대구 육상을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살비'를 문신으로 새겨 대구 자랑을 하였고, 튀니지 선수는 대구 선수단에게 주고 싶었다며 직접 조개껍데기로 만든 '2026 대구'라고 새겨진 기념품을 선물했다. 그들에게 대구 대회는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서구권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마스터즈육상대회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대구 대회는 개회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대구가 어떤 준비를 해야 선수단이 2026년 다시 한번 대구를 방문하게 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우선 2022년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가 2026년에 대구를 방문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실내경기에 국한되었던 2017년과 달리 대구 육상을 대표하는 대구스타디움을 활용해 선수들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등과 같은 메이저급 대회가 개최되었던 경기장에서 자신들도 뛴다는 자긍심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가족 휴가를 겸해 개최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의 체류 기간에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 참가자들이 대구의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참가 인원 확보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국내 및 아시아권 마스터즈 참가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026년 대회 유치가 확정된 지금, 대구에는 큰 숙제가 생긴 셈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대회 유치 슬로건 'Once again Daegu'를 위해 체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담을 넘는 사람들

춘추칼럼



심윤경
소설가

드라마 '우영우' 인기로 부각된 자폐
세상과 담 쌓고 불통 이미지로 인식

비자폐인 '배척·비하'로 더 높은 담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어린 시절 나를 생물학의 길로 이끌었던 영웅들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생태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뽑아내던 장 앙리 파브르와 캐나다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 늑대들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어니스트 시튼이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춘기 이전까지 나의 숨겨진 자아 정체성은 늑대였다. 내가 네 발로 기어 다니거나 방구석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은 내가 늑대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둑한 화장실에서 낯선 침입자 늑대를 물리치고 마루 아래 숨겨진 덫을 찾아내고 장롱에 숨겨둔 어린 늑대들을 보호하며 혼자만의 늑대 세계에 거주했다.

청소년기에 새로이 찾아낸 영웅은 템플 그랜딘이었다. 그랜딘은 자폐인으로서 축산 현장의 관행과 구조를 낱낱이 파악하고 동물이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동물 친화적 도축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녀의 통찰에 의하면 죽음 자체는 동물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에 충실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큰 칼의 존재에도 두려움이나 비애를 느끼지 않는다.

가축이 패닉에 빠져 난동을 부리게 하는 것은 펄럭이는 깃발이 드리우는 그림자의 빠른 움직임, 발굽이 미끄러지는 젖은 철판,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통로, 듬성듬성한 나무 판자 사이로 돌연히 쏟아지는 눈부신 빛 같은 뜻밖의 사물들이다. 그랜딘은 도축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동물들이 안정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고요한 최후를 맞을 수 있는 동물 친화적 도축장을 설계했다. 동물 친화적 도축이라니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지만 패닉에 빠진 동물이 몸부림치다가 다치면 도축된 고기와 가죽의 품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는 축산 농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고 그랜딘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은 북미 축산 농가에 빠르게 적용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동물의 사고를 한눈에 꿰뚫고 기존 건축 문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동선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그랜딘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그녀가 자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책의 내용이나 경험한 장면을 사진을 찍듯이 기억에 저장해 곧바로 찾아보고 기억 속의 구조물을 자유자재로 줌인 줌아웃하며 360도 입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사진기억법(photographic memory)은 흔히 천재의 한 표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물의 기억법'이라고 그랜딘은 설명한다. 그랜딘과 같은 자폐인은 동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형 사고를 하기에 남다른 기억력을 갖기도 하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한 자폐인 변호사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준 한 드라마가 화제다. 주인공 배우는 탁월한 연기력으로 애매한 시선과 뻣뻣한 동작, ARS처럼 다소 기계적으로 들리는 말투 등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게 표현해 내며 이 드라마의 인기몰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 드라마와 함께 36년 만에 후속 편이 제작되었다고 화제를 모은 인기 영화가 오래된 기억을 자극해 나는 '레인맨'도 다시 찾아보았는데, 주연을 맡은 두 명배우는 천재적 기억력을 가진 자폐인이라는 이색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고립감, 자폐장애라는 극도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하게 연결되는 사랑의 감촉들을 아름답게 보여 주었다.

자폐인이 보여 주는 기계적이고 폐쇄적인 표현과 반응 양식들 때문에 그들은 흔히 세상에 높은 담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폐인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있다. 높은 담은 자폐인들이 일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다. 익숙한 보통스러움과 다른 낯선 감촉을 쉽사리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비하하거나 배척하려 하는 우리 비자폐인, 비장애인 쪽에서 먼저 더 높은 벽을 쌓았다. 어떤 천재성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지구 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공존의 책임을 오늘도 잊지 않아야겠다.

김경수의 每日 희평 권성동! 멍청한 실수냐 의도적인 노림수냐? 서서히 그 해답이…



관풍루 觀風樓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과거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은 대통령 참모 조직의 정상적인 활동,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밀실 인사 가능성 높아져" 주장.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총대 멨다는 의심받는 전직 경찰답군.

○…문재인 전 대통령, 진보 성향 한국사 연구 단체가 출간한 '시민의 한국사' 추천하며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폐지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책"이라고 논평. 잊히는 것 못 견디는 '관종'병 환자?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침묵 모드. 하긴 윤 대통령이 함구하고 있으니….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주간 김해용 뉴스국장 김교영 신문국장 이춘수

대표전화 053)255-5001
대표팩스 053)255-8902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경북본사 054)855-1700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새는 집 방수 한번 시공으로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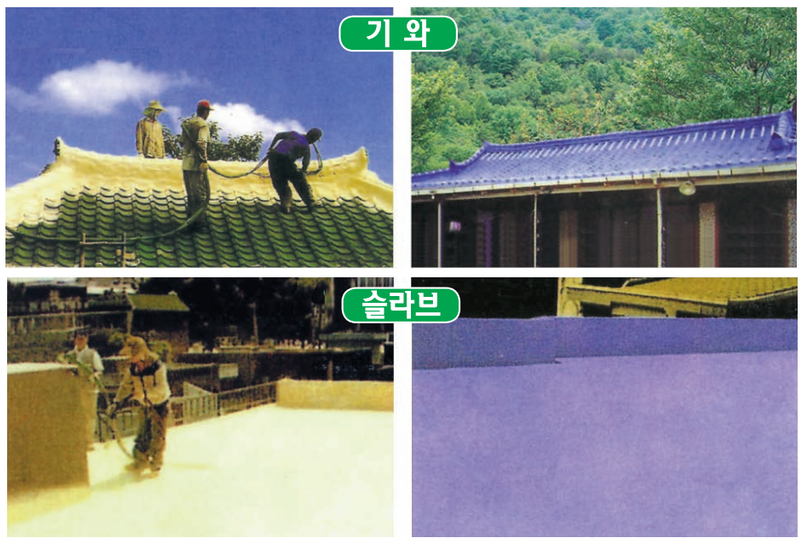
우레탄 방수·단열 전문 시공업체·하자 보증보험 100%

기 와 → 우레탄 폼 + TOP코팅
스레트·공장판넬 → 우레탄 폼 + TOP코팅
옥상 스라브 → 우레탄 폼 + 하이브래드 + TOP코팅

방수1팀	방수2팀	방수3팀
우레탄 폼	도막방수	외벽도색
단열방수팀	시트방수	외벽방수

한번 시공으로 방수에서 단열까지 반영구적. 어디든지 무료출장 견적 상담 해드립니다.

▼시공 중인 모습 ▼시공 후



(주)한일우레탄·한일주택
053)568-0600
010-3202-4848
FAX)755-5543
NAVER, DAUM 우레탄 방수 검색
http://www.hanilure.co.kr

버릴 것과 지켜야 할 것

청라언덕



김도훈
문화체육부 차장

16년. 지난 11일 폐막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 역사다.

2005년 '맘마미아' 흥행을 계기로 대구시는 뮤지컬을 블루오션 장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2007년 DIMF가 탄생했다. 그리고 지난 16년 세월 동안 대구를, 뮤지컬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뮤지컬 도시로 브랜딩해 왔다. 지금까지 국내외 342개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신작 뮤지컬 무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72개 작품을 배출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젠 매년 여름이면 DIMF를 위해 전국 각지의 발길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대구에서 성공을 거둔 뮤지컬이라야 전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수많은 뮤지컬 배우가 대구 공연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표한다. 세계적 뮤지컬 작품도 국내 첫 공연지로 대구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이미 옛말이 됐다. 이 같은 도시 브랜드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대구시와 DIMF가 공동 제작한 '투란도트' 성공 사례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011년 초연 이후 국내외에서 140회 이상 공연했고, 2017년엔 한국 대형 창작 뮤지컬 사상 처음으로 동유럽 6개국 라이선스 수출을 달성했다.

특히, 슬로바키아 노바스체나 국립극장에서 2020년 3월 초연된 슬로바키아 버전은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익의 12%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 '캣츠' '맘마미아' 등 글로벌 대작과 같은 요율이다.

이 작품은 올해 제16회 DIMF 개막작으로 지난달 대구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올랐다. 대구서 수출한 창작 뮤지컬이 라이선스 버전으로 제작돼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달 18일엔 원작 뮤지컬이 '투란도트-어둠의 왕국'이란 이름의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DIMF가 자리매김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특히, 문예진흥기금 지원 상한선 축소, 기금 사업 지방 이양 등으로 국비가 줄거나 없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조해녕, 김범일, 권영진으로 이어져 온 역대 대구시장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이슈로 대구가 시끄럽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는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지에,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낸다. 반면, 상당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새 시장의 행보가 미덥지 못한 듯하다. 지역 문화예술계가 퇴보하고 뒷걸음질할 것에 대한 우려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걱정하는 쪽도, 응원하는 쪽도 대구를 아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화예술계는 수많은 대구 시민을 포함해 예술계 내에서도 홍 시장의 개혁에 공감하는 인사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대중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홍 시장과 대구시도, 버릴 것은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혜안이 필요하다.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개혁 속에서도,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개혁을 위한 항해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며 함께 지켜봤던 마음으로 '홍준표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다. 2022년의 개혁이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야고부 野鼓賦

전승절

1953년 5월 2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1453년 오스만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기념한 500주년 전승 행사였다. 정부가 마련한 열흘간의 기념행사는 오페라, 패션쇼 등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올해도 569번째 전승 행사는 이어졌다. '길이길이 빛내리'라는 다짐은 교가 가사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더니 승리한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직도 이어진다.

1천58년 역사의 비잔틴제국을 멸망시킨 이 전투를 역사학자들은 중세의 막이 내린 전환점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보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과정의 특이한 작전이 단골로 소개된다. 오스만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삼중벽으로 둘러싸인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전고투했는데 결국 그는 수십 척의 배를 들어 산을 넘는다. 승리로 가는 최대 난제였던 골든혼(Golden Horn)으로 진입했던 것이다.

드라마나 만화 같은 스토리를 품고 있는 승리의 날, 전승절은 그러나 대개 침략의 성공보다 성공적인 방어를 자축하는 행사다.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똘똘 뭉쳐 이겨 냈으니 지금의 우리는 또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2천900만 명이 죽고도 이겨 낸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5월 9일), 1937년부터 8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1천50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중국의 '대일전승일'(9월 3일)이 대표적이다.

패배를 매년 기억해 오는 나라도 있다. 세계 최강 전력의 미국이다. 일본에 진주만 공습을 당했던 1941년 12월 7일을 기념한다. 심지어 1941년 일본군의 공습으로 수장된 애리조나호를 그대로 두고 그곳에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을 세웠다. 그날의 패배를 잊지 않고, 다시 그런 치욕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북한의 전승절은 6·25전쟁 정전협정 조인식이 있던 7월 27일이다. 선제공격으로 남침해 거둔 반쪽짜리 결과물일 텐데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이라 기념한다. 올해는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6·25전쟁 참전자들이 참석한 전국노병대회에서는 "이 땅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 기습 남침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처럼 읽혀 소름이 돋는다.

김태진 논설위원 novel@imaeil.com

사 설 社說

경제인들 8·15 사면해 경제 회생 위해 뛰게 하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이 단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향후 5년간 국내에 삼성은 360조 원, 롯데는 37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총수들의 활동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 유럽 방문에 나서는 등 대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 주려면 복권이 필요하고 그 전제가 특별사면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이 복권된다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면은 경제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등 세계와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직접 국내외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닐 수 있고, 국내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계도 일찌감치 사면을 요구해 왔다. 경제인들의 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필요하다. 경제인 사면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회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인들에게 윤신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은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인들이 경영활동 반경을 넓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 줘야 할 때다.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 의원들, 성과 보여 줘야 2년 뒤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활동에 들어가면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에 대거 포진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에 지역 의원들이 각 4명씩 배치됐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지역 의원들이 많이 이름을 올려 국비 확보, 기업 유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특별법 처리 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들의 분투가 절실하다.

신규 사업이나 SOC 건설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의원들의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재부에 건의한 중점 국비 사업 20개 중 기재부 긍정 검토 사업은 340억 원 규모의 대구형 반도체 팹(D-Fab) 구축 사업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진 마당이다. 압도적 지지로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대구경북의 정치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비 확보에서 대구경북이 홀대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원들이 현안을 내 일처럼 챙기고, 발로 뛰는 게 마땅하다.

대구경북 의원들의 전반기 의정 활동은 시도민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존재감이 없다거나 국회에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다. 지역 현안이 걸린 문제에서도 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적극 대처하지도 못했다. 전반기는 야당 의원이란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활동이 미미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권교체로 이제 여당 의원이 됐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지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성적이 2년 후 총선에서 당선 여부를 가르는 잣대라는 사실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인 투자자 피해 주는 주식 공매도 문제 바로잡아야

증시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주식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매도 전략을 쓰는 바람에 손해를 입는다고 하소연한다. 기업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공매도 제도를 섣불리 손댈 경우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 주식 하락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입증된 근거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우선적 조치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빌려 간 주식의 상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상장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할 경우 90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에게는 기한 제한이 없다.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드물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이익을 본다. 그뿐만 아니라 공매도에 나선 큰손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얻기 때문에 부정적 소문을 퍼뜨려 기업 가치를 왜곡하고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공매도 담보 비율이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05%로 개인(140%)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북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안전한 헴프의 시작을 안동에서 합니다

대마! 마약인데?

대마(HEMP)

대마의 주요 성분은
CBD(진통작용), THC(환각작용)

헴프
·THC함량 = 0.3%미만
·CBD함량 = 20%이상

마리화나
·THC함량 = 0.3%이상

※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마약으로 취급

마약에서 벗어나 의료용 신소재로 산업화?

규제자유특구인 안동에서만 가능

- 특구기간(2020. 08. 01.~2024. 07. 31.)내 대마산업 취급 특례를 받음
- 헴프 재배 및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관리 실증(35개 참여 기업)

"의료목적 바이오 소재 산업육성"

※ 헴프씨드, 섬유용 대마는 보건소 신고 후 재배 가능합니다.

"대마, 더 이상 마약이 아닙니다."

바이오·친환경 소재 개발로 안동 경제를 이끌어가겠습니다.